

##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 명		학 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b>(한글) 92년생 김씨의 계보학: 사회학적 자서전 쓰기</b> <b>(영문) Sociological Autobiography Writing</b>		
지도교수 의견	<p>-필자는 자신의 지난 경험을 돌아보며 이것을 밀도있게 재구성하였다.</p> <p>-글의 힘은 내면의 소리를 윤색하지 않는 솔직함이다. 자신의 복잡했던 과거 실감을 글로 옮기는 것은 과거와의 재대결이다.</p> <p>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전디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뱃짐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자라고 사회학을 공부하며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의 자기고백인 이 글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p> <p>-서문 혹은 결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생각해 보기.</p>		

### 1. 도전 과제의 목표

- ① 서사 구성에 참고할 텍스트(「82년생 김지영」, 「복학왕의 사회학」 등)를 강독하고 추가적으로 서사 구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 ② 자신의 삶에 대한 발자취를 따라간다. 태어난 곳부터 집을 떠나 생활했던 장소를 방문해 이미지 자료와 회상되는 기억을 메모에 기록한다.
- ③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태어난 순서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삶을 한 편의 글로 정리한다.

### 2. 도전 과제 내용

- 서사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선정 후 정리
  - ① 「82년생 김지영」, 「복학왕의 사회학」, 「내 인생의 자서전 쓰는 법」
- 자신의 삶에 대한 발자취
  - ① 대구 의료원 -> 대구 서구 평리동 -> 경상 성주 -> 경북 경산 -> 경북 성주 -> 경기도 오산, 화성 -> 터키 -> 경산 -> 서울(용산구, 영등포구, 노량진) -> 경산

### 3. 도전 과제의 성과

삶의 발자취를 따라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

### 4. 자기평가

서사자료 정리 후 삶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 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갔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수정 할 게 많지만 '글'을 매개로 한 결과물이 나왔다.

5. 최종 결과물: 도서 제작

# 92년생 김씨의 계보학

지은이 :

## CONTENT

머리말

제1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5

제2화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상장에 집어넣었다. 14

제3화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39

「92년생 김씨의 계보학」을 마무리하며

## 머리말

2010년 수능능력 시험을 치르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나는 지금까지 받은 모의고사 성적 중 최악의 성적을 수능으로 받았다. 썩의 경제적 상황은 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갈 것인지 혹은 전문대학에 들어가 취업 준비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다. 처음 선택은 전문대학에 들어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능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결국 나의 선택은 대구대 사회학과를 진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어려웠다. 주변 환경은 내가 원하는 답보다 사회가 원하는 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슬과 같은 피로예약이 반영해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정해놓은 답을 철실하게 찾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험들만 선택해서 실천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 농활, 진로와 관련 없는 동아리 활동 등)그 결과 대학에 들어온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듯 군대를 가버렸다.

20살의 나를 뒤돌아보면 아쉬운 1년으로 기억되지만 그 1년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그래서 '군대'라는 공간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군대에서 주어지는 책, 잡지, 군대 안에서 활용되는 인터넷 망을 통해 우연히 '열정대학' 대표의 인터뷰를 읽게 되었다.

'열정대학' 플랫폼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자'였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인터뷰를 읽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그리고 그 설레임은 1년이 지난 후 전역하는 그 날까지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를 장기간 휴학하고 '열정대학'에 학생으로, 운영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활동을 게으르게 한 것도 아니고 짧게 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00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말하지 못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학교로 돌아와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주제는 '진로'였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거나 맞지 않았다. 그 결과 원형달모가 오고 조급함이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래 전공하고 있던 사회학 공부도 점점 재미있었다. 특히 '페미니즘' 공부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해줬고 그 중 '82년생 김지영'은 소설이지만 상징적으로 여성들의 불편한 삶을 보여줬고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됐다. 또한 지방대생을 주제로 다룬 '북학왕의 사회학'은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이 친구들은 학교를 왜 다닐까?)후배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풀어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줬다.

처음 나는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 '82년생 김지영' 혹은 '북학왕의 사회학'처럼 어떤 구체적인 개인의 노력과 도전, 실패와 성과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나'로 말이다.

그렇다면 왜 '나'인가? '82년생 김지영'은 여성들의 일상적 삶을 소설과 집록 후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줬다. '북학왕의 사회학' 또한 대구, 경북권에 있는 지방대생의 경험을 다룸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스스로 삶을 들여다 봄으로써 27년간 살아온 삶의 역사를 정리하고,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서전이 아닌 나의 삶을 현재 전공하고 있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으로 돌아보고 해석함으로써,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고 '사회'라고 불리는 불가항력에 도전하고 싶다.

제 1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1992년 3월 25일 ~ 1999년 2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를 세고 시간을 기록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태어나고 2-3년 동안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를 세는 게 옳을까? 태어난 순간이 아닌 기억의 시작부터 시간을 기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물론 무의식에 남는다고 하는데 흠...무의식은 좀처럼 들어 나지 않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첫 기억의 장소였던 경상북도 '성주'에서 시작 하는 게 옳다고 봤다. 그러나 '기억'은 없지만 '몸'은 존재했던 그곳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적기 시대를 빼놓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이야기의 출발점을 대구 서구에 위치한 '평리동'에서 시작한다.

### ○ 평리동의 삶



그림 2 당시 평리동에 살았던 집 외부모습

엄마는 길 근처에 위치한 '이현초등학교'에서 내 걸음마를 떼기 위한 연습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엄마의 손을 잡고 몇 걸을 걷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던 순간은 떠오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씨방 화장품'으로 바뀐 옛 '성주 쌀길' 위 빌라는 내게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다. 다만 결혼 후 이곳에 신혼집을 장만한 엄마는 성주로 이사를 간 후 30년 가까이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아들이 보내 준 사진 몇 장으로 기억하시는 걸 보니 역사의 길이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 같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영향을 미친, 이태운에서 근우 엄마로 불리기 시작한 엄마의 서점살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강북 김천 농협에서 일했던 엄마를 보고 반한 아빠가 엄마에게 들이대기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엄마, 아빠를 보는 나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에 있어 이렇게 맞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삼촌 이야기를 들으면 둘은 사랑했고 연애를 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결혼한 당사자(여기서는 엄마, 아빠)들 만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다. 그리고 아이를

남는 등 가족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식구는 늘어난다. 엄빠도 결혼 후 둘만의 신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결혼 하고 나니 아빠만이 아니라 증조할머니, 큰고모, 삼촌까지 맡게 되었다. 그렇게 평리동 어느 골목 안에 있는 주택단지에서 1년을 살았다. 가장 큰 방은 엄빠, 아빠가 살았고 작은방에 증조할머니, 삼촌, 큰고모가 살았다. 1년 후 큰고모는 시집을 갔지만 다른 식구들도 '성주 쌀집' 위에 있는 2층 빌라로 이사 했다. 하지만 엄빠의 환경은 변함이 없었다.

아빠는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인 건축학을 살려 건설 사업을 했다. 그러나 사업은 번번히 실패했고 다행이 짧은 시택에서 받은 걸로 채울 수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부족했다. 또한 가정적이기 못한 가부장은 퇴근 후 만화방 가기 바빴다. 증조할머니는 모든 면에서 잔잔했고 막내이자 늦둥이인 작은 할아버지 걱정이 가득했다. 어린 삼촌은 친구를 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온통 김덕기(아빠)편이었다. 식구는 많았고 수많은 과제가 엄빠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자기편이 없는 서러움에 엄빠는 김천에 있는 친정집에 자주 갔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은 아니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엄빠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났던 엄빠는 얼마 되지 않아 '나'를 낳았다.

엄빠에게 있어 '나'는 하늘에서 푹 떨어진 애기였다. 흰 피부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받는 아기를 가진 엄빠는 적어도 신혼 때보다 더 나은 의지로 시집살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단란한 신혼의 꿈은 적어도 엄빠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 ※ 평리동에 대한 역사

가족이 처음 이 터를 잡은 이유? : 어머니와 결혼을 하기 전 아버지는 대구 영진전문대학을 다녔다. 작은 고모는 비산동 근처 공단에서 일을 했다. 삼촌 또한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작은 할아버지는 대구시 공무원(?\_정확하게 알아봐야 겠다)을 하시며, 평리동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거리 상 서로 멀지도 않은 곳에 학교, 직장이 있다. 경제적 효율성만 따졌을 때 굳이 멀리 따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성주읍도 아닌 면 안에서도 한참 드러가야 하는 적산 출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외로운 도시 생활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몇 년 뒤 나의 역사도 첫 출발은 평리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정을 붙이고 기억을 시작하기 전 아버지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이유로 대구를 떠나게 되었다.

#### ※ 92년생은 얼마나 태어났나?

92년도 730,678명이 태어났다. 2017년 35만 7천 7백 명과 비교할 때 약 38만 명이나 줄었다.<sup>1)</sup> 성비는 92년 113.6명 2017년도 106.3명과 비교하면 7.3명 높았다.<sup>2)</sup> 90년 이전까지 산아제한 정책이 다소 완화되어 둘째 혹은 셋째를 가지는 가정이 늘어났다. 그리고 92년생까지 에코붐 세대<sup>3)</sup>라고 부른다. 또한 남아 성비는 현재와 비교할 때 92년에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청

2) 「2017년 출생 통계(확정)」, 통계청

3) 에코세대(Echo-Boom Generation)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 생 사이의 자녀 세대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출처 《텐아시아》



## ○ 휴게소 빌라의 삶 : 기억의 시작



그림 3 성주에서 이사 온 첫 집. 2층에서 살았다. 현재 황재휴게소는 pc방으로 바뀌었다.

대구 평리동에서 성주로 이사를 왔다. 성주읍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근(?) 빌라는 황재휴게소 위에 위치했었고 그래서 빌라 이름도 황재휴게소 빌라로 불렸다. 성주에서 얻은 첫 집은 앞으로 살게 될 집 중 가장 호화로운(?) 집이었다. 거실이 있고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 안에 있었다. 이곳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 달리 경제적 빈곤은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주 술을 먹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 삼촌 친구는 떠났지만 삼촌과 증조할머니는 남았다. 또한 성주군 벽진면에 위치한 시댁은 더 가까워 졌고 손자를 보기 위해 시어머니의 장래는 잦았다.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이 힘든 삶을 당시까지는 모르고 지냈다.(너무 어렸다.) 오히려 키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할머니가 나를 유독 이뻐 하셨고 편애가 심했다. 어쩌다 사촌 동생 정만이가 나를 괴롭히면 무조건 내 편을 들었고 '근우 넌 너무 착하다고 동생들을 좀 때리라고 내 손을 강제로 동생들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작은 고모는 "엄마는 만 손자고 (사촌동생, 고모의 자식)이는 손자도 아니가"라고 서운함을 들어내기도 했다. 어렸을 나는 내가 인지하는 선에서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살았다.

## ○ 성주읍사무소 허름한 주택

대구에서 성주로 이사 왔지만 우리 가족은 중산층 가족을 잘 흉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좋지 못한 아버지의 건설 사업이 더 빠격거렸고 점점 눈으로 들어났다. 인생의 첫 이사였다. 낡은 사무실 겸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바꿨다. 방은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고 방 안에 수도꼭지도 있어 엄마는 동생 똥 기저귀를 빨았다. 화장실은 밖에 있어 다니기 불편했다. 무궁화 유치원이란 곳에 다녔지만 유치원에 보낼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한글을 썼다.



그림 4 성주읍사무소 앞에서 살았던 집 현재는 종합타일 집으로 바뀌었다.

경제적 부족함에서 오는 물리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잘 모르고 지냈다. 어떤 사물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던 본격적인 시기는 이때부터인 것 같다. 그래서 예전 길에 살았던 편안함은 기억나지 않고 불편함을 이야기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주변 또래 친구들 삶도 비슷해 전망이나 부러움이 대상이 없었다.

동생이 태어났다. 엄마의 배가 부른는지, 동생이 태어날 때 병원에 따라갔는지 등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생겨났다.(물론 내가 배 아파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떤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럽다.(아마 우리의 미적 감각은 작고 귀여운 것에 사족을 모 쓰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닐까?) 특히 애니메이션 '장구' 뒤뚱수처럼 툭 튀어나온 뒤뚱수는 ' (동생)의 매력인데 뒤뚱수 때문에 딱바로 눕혀도 고개가 옆으로 기우는 모습은 지금도 절로 웃음꽃을 피게 만든다.

95년도 태어난 동생은 어느 순간 걷기 시작했고 나를 잘 따라다녔다.(따라다닌 건지 내가 허락했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던) 그런데 어느 날 귀 밑에 염증이 생겼다. 일반적인 염증이라고 생각한 엄마는 약국에 약을 사겨 약을 받았는데 염증의 크기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갔다. 염증의 크기는 계속 커질 정도로 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엄마는 설주에 있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더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에 동생을 데리고 김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했다. 하지만 아픈 동생을 데리고 어린 나까지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는 저녁 때 아빠가 올 테니 그때 같이 오라며 말하고 먼저 김천으로 향했다. 엄마는 떠나면서 내가 계속 즐겼던 로봇 전투기 장난감을 남겨뒀다. 나는 떨 듯이 기뻐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방 안에서 놀았다.

항상 엄마는 곁에 있었고 서랍장 위에 게어 있는 이불을 해집지 마라. 서랍장 위에 올라가지 마라. tv를 코 앞에서 보지 마라 등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잔소리를 했다. 그런데 동생과 함께 김천을 떠나며 집 안에는 나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나는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다. 엄마의 잔소리가 심해 할 수 없었던 놀이를 해보기로 했다. 나무 선반 위 게어져 있는 이불을 방바닥에 던지고 서랍장 위에서 폭신한 이불을 향해 뛰었다. 그렇게 몇 번을 뛰고 오르고를 반복하며 이불 먼지를 먹었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을 하고 나니 시들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tv를 틀고 코앞까지 다가가 봤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내가 즐겨보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았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옮겼지만 마찬가지였다. 재미가 없었다. tv를 끄고 엄마가 새로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집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나는 점점 무서워졌다. 10시가 넘어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무섭고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은 엄마에 대한 서러움에 눈물이 났다. 영영 울며 문 밖에서 아빠를 기다렸다. 그래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저 멀리 석양 문을 닫고 있는 흥천떡배기 사장님이 우는 나를 본 것 같다. 나에게 어떤 말을 거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얼른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몇 번 더 울었다. 그런데 울고 나니 잠이 잘 왔다. 엄마가 있을 땐 꼭 tv와 불을 끄고 자야만 했다. 그런데 나는 tv와 불을 끄고 자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냥 자버렸다.

새벽이 되어 아빠는 나를 데리고 김천에 있는 이형 집으로 갔다. 왜 집에서 안자고 이형 집에서 자는지 모르겠지만 어렸든 남은 밤을 거기서 보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빠와 겐로포를 탔다. 겐로포 조수석에 있던 로봇 장난감을 확인했다. 혹시 다른 친구들이 뺏을까봐 놔두고 왔는데 잘 있는 것 같다. 다행이다. 안개가 많이 걸렸다. 하지만 엄마, 이불 본다는 생각에 밤에 느꼈던 공포를 잊고 얼른 가기를 바랐다. 삶에서 처음 느낀 불안과 공포를 잊기 힘들다. 하지만 그때 알았던 건 익숙해서 소중한줄 몰랐던 가족들의 존재였다.

동생이 태어났지만 가계는 점점 어려워졌고 97년 IMF가 터지며 사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 동생과 나를 돌보기 위해 따로 일을 하지 않으셨던 엄마도 우리를 외할머니에게 맡겨 놓고 소방대원들 밥 해주는 일을 했다. 나와 동생이 단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동생을 보살피는 시간도 많아졌다. 하지만 잘 놀았던 것 같다. 동생이 태어나 '형'으로써 맡은 역할을 해야 했지만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읍사무소 앞에 있는 뽕나무 열매를 올라 오디를 따먹고 화단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올라 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애용했던 장소는 집 뒷편에 있던 놀이터였다. 어느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 구름사다리도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상대방을 잡는 승박꼭질을 하고 누가 그네를 더 높이 올라가나 겨루기도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네친구들을 사귀곤 했다.

그러나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니다. 노는 것이 너무 좋은 시절 '안전'에 대한 생각은 나도 친구들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타는 등 어떤 놀이를 하면 승부가 이어졌고 적당히 끝나면 좋지만 적당히 끝나지 않을 경우 넘어지거나 떨어져거나 다른 친구들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했다. 나 같은 경우 높은 구름사다리에 떨어져 이빨이 부러졌고 친구가 던진 돌맹이에 맞아 머리를 깨미는 일이 있었다. 특히 돌맹이 때문에 머리를 깨냈던 사건은 병원에 갈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치료가 끝난 후 엄마와 외할머니가 돌맹이를 던진 그 친구 집에 찾아갔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어른들이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형편으로 유치원을 그만 다니기 전까지 나는 읍 소재지에 있는 '무궁화 유치원'을 다녔다. 또래 관계에 있어 지금까지 부모님 소개로 이어진(아버지 친구 분 자제 혹은 주변 이웃들) 친구들이 주 관계였다면 유치원은 주변 사람 도움 없이(유치원 선생님이 계시지만)관계 형성을 해야 했다. 사람이라면 낯선 것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고 성격 상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도 어려워하는 '나'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한 명, 두 명 이름을 알아갔다. 하지만 유치원을 다니던 그 때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진 속 어린 나를 봐도 언제나 썩그리고 있을 뿐이다.

아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치원 생활을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유치원 안에 만남은 자연스럽게 않았다. 해바라기반, 개나리반 등으로 불리는 반에 모여 이름표에 붙인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함께 지낸다. 그리고 함께 지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더 재미있어 보이고, 나도 끼어서 놀고 싶은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아 샘이 나는 등 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던 친구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만나야 하며, 친구들에게 양보도 해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참아야 하는 등 인위적인 분위기가 거북스럽게 느껴졌다.

특히 '산타클로스'를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진이 있었다. 어린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특히 '산타'의 존재는 특별하다. '산타'라는 낯선 존재가 내가 원하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소망과 꿈을 만들고 기대감을 만든다. 나 또한 하루 빨리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물 상자에 쌓인 반짝거리는 포장용지 상자를 받고 싶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전날 유치원에서 '산타' 행사를 진행했다. '산타' 복장을 입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포장지로 쌓인 선물들이 있고 한 명씩 호명해 선물을 받게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곧 이어 내 이름이 불렸고 나는 형형색색 포장지가 아닌 누런 포장지로 포장한 기대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 '산타'는 존재하지 않구나. 이 사람도 '산타'가 아니라 일하는 아저씨구나.'

행사 전날 밤 엄마의 행동은 부산스러웠다. 엄마는 평소 하는 일 대부분을 눈앞에서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내 눈치를 보고 숨기기 바빴다. 사람이 뭔가 숨기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그걸 보고 싶어진다. 만약 잠는다면 꿈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엄마의 행동에 속는 척 하며 엄마가 무얼 하는지 지켜봤다. 엄마는 어떤 상자를 누런 종이에 싸고 있었다.

'산타'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산타'라는 게 나는 더 좋았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내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경제적 이유로 유치원을 그만 갔다. 엄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못해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좋았다. 거짓말 하는 유치원을 계속 다니봤자 좋을 게 없어 보였다.

경제적 형편으로 유치원을 그만두었지만 미술 학원은 계속 다녔고 거기서 현금을 익혔다. 베이커리 빵집 맞은편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어느 마트 오른쪽 건물 2층에 학원이 있었다. 넓지 않은 교실에 간이 의자와 책상에 놓여 있고 무섭게 생긴 석고 조각상들이 있었다. 조금(?) 허름했던 학원이지만 야구 티셔츠를 입고 2:8 가르마로 스타일 했던 나는 미술 학원이 좋았다. 아마 홀로 학원을 이끌었던 선생님 때문인 것 같다.

학원 한 칸에 사무실 겸 선생님이 머물렀던 공간이 있었다. 학원을 일찍 오면 선생님은 이곳에 우리를 불러 맛있는 코코아를 주기도 하고 초콜릿을 주기도 했다.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던 칭찬을 해주셨다. 그림을 못 그리던 걸 그리던, 보여준 것 그대로 그리던 엉뚱하게 그리던 상관하지 않았다. 물론 수업 중에 떠들거나 교실을 마구 뛰어다니는 등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비워서 혼내는 것이 아닌 행동에 대한 꾸짖음 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다. 선생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대했다.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사랑을 주는 느낌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유난히 기억이 더 남는다. 선생님은 제2의 엄마였다.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버지 지인분과 결혼을 하고 난 후 학원 운영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갔다. 새롭게 바뀐 학원에 갔다. 우리가 썼던 책상과 의자, 석고 모형 등은 그대로였다. 기존에 계속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이었고 나를 알던 안경 권 선생님은 숲속을 그리게 했다. 그래서 나무가 울창한 숲속을 그렸고 그 안에 나무 서랍장을 그렸다. 서랍장을 왜 그렸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싶어 그렸다. 그런데 선생님 눈에 멀쩡한 숲 그림에 나무 서랍장이 중간이 멩그러니 있는지 궁금했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게 왜 서랍장을 그렸는지 물어봤다. 그런데 나는 이유

가 없었기에 '그냥이요' 라고 대답했다. 대답을 하고 난 후 선생님은 웃으며 지나갔다. 그러나 '관학은'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익숙했고 친숙했던 공간이 한 순간에 낯선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미술 학원을 가지 않았다.

### ○ 백전리 고개 만데기



그림 8 백전리 고개 만데기 집은 세 번째 이사였다.

성주읍에서 백전면으로 향하는 길은 돌러가지 않는다면 군청이 위치한 고개를 넘어 가야했다. 그쪽 올라가는 시작점과 내려가는 출발점 옆 길목에 세 번째 집이 위치했다. 고개 끝에 있어 '고개 만데기(산마루의 방언)'라고 불렸다. 2층은 주인집이 살고 우리는 그 아래 1층에서 살았다. 평수로 따지면 전에 살던 집보다 좁지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은 '고개 만데기' 집이 더 넓었다. 하지만 화장실은 여전히 밖에 있고 예전 방식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부세식 화장실은 정말 급하지 않는 이상이 아니면 가고 싶지 않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1년을 머물렀다.

IMF가 터지고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없었다. 엄마가 소방서에서 밥 해 준 돈으로 먹고 살았다. 일을 했던 엄마는 우리를 돌볼 수 없어 외할머니가 우리를 돌봤다.

집이 이사를 가고 기존에 있던 동네랑 멀리 떨어졌다. 친구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주변 또래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6살인 나와 3살인 동생은 심심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을 데리고 동네 여기저기를 떠돌았다.

주변에는 밥이 많았다. 밥에는 강아지풀, 쇠뜨기, 개방초, 클로버, 단풍잎 채지풀, 예기뿔풀, 환삼덩굴과 같은 잡초뿐만 아니라 배두기, 귀뚜라미, 땅아래미, 무당벌레 등이 있었다. 나에게는 많은 장난감이 있었다.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밥에서 노는 게 훨씬 재미있고 신기한 게 많았다.

한국 사회도 어렵고 우리 집도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다. 아니, 걱정이 없었다. 엄마는 짐이 어려워도 우리를 굶기지 않았다. 비싼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 아니라도 3끼는 꼬박 밥을 먹였다. 나와 동생 또한 반찬에 큰 불만이 없었다. 평일에는 성주읍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유치원을 다녔고 끝나면 밥에서 놀았다.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고 만화가 끝나면 엄마가 빨래를 하러 나오기 전 2층 주인 집 계단 난간에 누워 아침 햇살을 즐겼다.

제 2화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상자에 집어넣었다.

1999년 3월 ~ 2013년 12월

### ○ 재실

'고개 반대기' 집 계약이 끝나고 우리는 네 번째 집으로 이사했다. 네 번째 집은 벽진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있었다. '풍농비료'로 불리는 농약 집 옆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농이나 종교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재실'이 있었고 그 옆에 허름한 집에서 우리는 살았다.

#### 그림 9 재실 집 앞 동생과 함께

소방서에서 일을 했던 엄마는 소방서 일을 그만두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분식집을 차렸다. 어떤 이유로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농사를 지었던 엄마의 어린 시절과 학교를 끝내고 난 후 농협에서 일을 하고 소방서에서 밥을 해줬던 게 엄마 경력에 장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엄마는 성주여고생, 버스 이용객을 주 고객으로 설정하고 한 면도 경험하지 못한 분식 장사를 시작했다.

개업기념으로 반값에 떡볶이를 들렀을 때는 줄 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나 개업 효과가 끝난 시점부터 점점 사람은 줄어들었다. 장사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생각에 속된 말로 위치가 정말 구겼다. 엄마의 분식집은 버스정류장과 성주여자고등학교 중간에 위치했는데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분식집을 찾을 이유가 없으며, 여고생들 또한 학교를 마치면 가는 길마다 분식집에 있는데 엄마의 분식집을 찾아갈까? 물론 엄마의 좋은 성격 때문에 몇몇 손님이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곧 발길이 끊기고 새롭게 도전한 장사는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나 또한 엄마의 잘못된 선택만큼 어리숙하고 양면하지 못했다.

가정에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까지 맡은 엄마에게 자식 교육을 맡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



는 알파벳을 뱉 수 있게 영어선생을 붙여줬다. 당시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알파벳을 공학적으로 배운 걸 생각하면 7살 때 영어 학습은 상당히 빠른 선수학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알파벳을 배울 만큼 똑똑하지도 못했고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언어보다 내 흥미를 끌었던 건 영어 선생이 내밀었던 색연필 세트 때문이다. 미술학원에서 크레파스만 사용했지 다른 색채도구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크레파스와 달리 아랫부분을 들리기만 하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색연필은 신기했고 간편해 보였다. 또 어릴 때 그림을 그렸던 추억이 떠올랐다. 저 색연필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욕망이 더욱 커졌다.

일주일에 한 번 영어 선생이 다녀왔던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어선생은 화를 냈다. 지난 주 알려준 'H'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선생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일부러 영어 알파벳을 외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다른 것에 목적이 있던 내게 영어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는 흘리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언어에 민감하지도 못한 어린 아이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알파벳이 외워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 겨우겨우 알파벳을 다 외웠다. 하지만 그 이후 영어 알파벳은 초등학교 때 배우기 전까지 3년 동안 쓰지 않았다.

파리만 날리는 분식집에도 간혹 어고생 손님들이 찾아왔고 손님이 올 때 엄마는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데 그 날은 지폐를 거슬러줄 잔돈이 없어 내게 전원을 주며 과자 아무거나 사먹고 남은 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나는 무척 기뻐했다. 그래서 1,000원을 가지고 사탕을 하나 사고 다시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내 눈 앞에 '쌍계뽕' 오락기가 보였다. 이 오락기는 100원을 넣은 후 게임이 시작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플레이어가 이기면 랜덤하게 돈이 떨어졌는데 실제 100원 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오락실에서 아이들이 이 게임 하는 것을 지켜봤다. 나도 하고 싶었지만 당시 돈이 없어 그냥 구경만 했다. 하지만 오늘은 내 눈 앞에 돈이 있고 이 돈을 이용해 돈을 벌면 그래도 1,000원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고 다른 아이들은 쉽게 돈을 땀지만 나는 쉽게 돈을 잃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잔돈으로 남겨야 하는 돈까지 줄어들었고 30분을 그 게임기 앞에 있었다. 엄마가 찾아오는 건 당연했다. 나는 내가 가진 의도를 설명했다. 이 게임기에서 이기면 1,000원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고생 손님은 자리 없었고 분식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파리채로 맞는 나는 흠뻑 잘못을 벌었다. 단 돈 몇 백원 때문에 내가 맞는 게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 안 그래도 장사가 되지 않는 분식집에 단골 고객까지 잃는 건 너무 큰 손해를 그리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이후 나는 그 게임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부모의 가치관 중 가장 중요한 걸 자식이 어겼을 때 혼내지 않겠는가? 가부장 가족 사회에서 가장은 집 밖에 일만 신경 쓰면 된다. 집 안 일과 자식 교육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아빠 얼굴은 보기 힘들었고 자식 교육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자식 교육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물이며 우리의 행동이 잘못 되었을 때 혼은 내는 사람은 엄마였다. 이런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갈등관계가 있을 때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등산을 좋아했던 아빠는 어린 나를 데리고 태백산을 갔다. 새벽에 일어나 엄마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옆자리에는 아버지 친구 아들이 타고 있었고 이름은 이었다. 이는 나보다 한 살

어렸다. 그래서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당시 유행했던 포켓몬스터 포켓 도감을 들고 있던 나는 이 와 포켓몬스터 이야기를 하며 친해질 수 있었다. 등산을 다녀온 후 분식집 근처에 사는 기랑 친하게 지냈다. 당시 유행은 포켓몬스터 딱지를 모으는 일이었고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스터 딱지를 구경하고 필요 없는 딱지는 주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포켓몬스터 딱지를 따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딱지치기’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은 게 큰 것을 이기기 힘들다. 반대로 크기가 큰 것은 작은 것을 따기 쉽다. 기랑의 딱지는 큰 게 많았고 상대적으로 내 딱지는 작은 게 많았다. 처음부터 승부는 기랑이 이길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이도 1살 많고 넓은 마음을 가진 형의 마음으로 승부를 이해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지나칠 정도로 딱지를 따냈다. 어른들 세계에도 상도덕이란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도덕을 무시했다. 그래서 기랑 싸웠다. 하지만 이 싸움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싸움이 시작되고 서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사를 하고 있던 엄마에게도 우리의 소리가 전해졌다. 엄마는 즉시 싸움 현장에 출동했고 왜 싸웠는지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 엄마의 눈에는 싸움의 원인이 포켓몬스터 딱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으면 분란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기기에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포켓몬스터 딱지를 없앨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래서 엄마는 내 포켓몬스터 딱지를 기랑에게 모두 쥐여줬다. 10L 비닐봉지에 가득 했던 내 유일한 재산이 사라졌다. 영특하지도 영악하지도 않은 나는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울며 내 감정을 달랬다.

1년도 되지 않아 분식집은 문을 닫았고 엄마는 상주읍에서 대가면으로 가는 방향에 위치한 바퀴 공장에 취직했다. 엄마의 역할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가장과 짝 안 일을 하고 어른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며느리, 자식의 교육까지 책임지는 등 너무 많은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바빴다. 이런 엄마의 걸을 미리 알았더라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챙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미숙한 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서운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일이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두 하얀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실내화가 없었다. 실내화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주눅이 들었다. 신발도 하얀 실내화와 반대되는 검은색 운동화였다. 어떻게든 신발을 숨기고 싶었다. 다행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신발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낯선 환경 때문에 긴장했는지 소변이 너무 마려웠고 결국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애써 모른 척 했다. 그리고 소변을 봤다. 그런데 한 아이가 너는 왜 실내화를 안 신고 신발을 신고 있는지 물었다. 그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서러운 감정이 폭발치 영영 울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린 나를 위로했다.

## ○ 불안의 시작(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학교에 영향을 미친 점)

입학식 날을 울음으로 보내버린 것과 달리 학교생활은 재미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수업도 재미있었다. 선생님도 친절했고 가장 좋은 건 수업이 일찍 끝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불안감이 나를 덮쳐왔다. 불안감의 원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다.



그림 10 재실 집으로 가는 골목.

할아버지는 평생을 벽진면에 위치한 적산 동네에서 참외와 벼농사를 지었다. 할머니도 시집을 갔지만 대가변에서 벽진면으로 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살아가는 곳은 비슷했다. 나는 적산에 계시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갈 때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개 만대기' 길에서 '재실'로 이사 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함께 살게 되었다. 사돈과 함께 사는 게 불편했던 외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외삼촌을 따라 서울로 가시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지었고 할머니는 군청 앞에 있는 방앗간에서 일을 했다.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밭을 얻어 농사를 지었고 길 앞에도 남는 땅이 있어 5동의 하우스를 만들었다. 가족 모두가 경계 활동을 했다. 나와 삼언이도 빠질 수 없어 학교를 다녀오면 끼지기로 불리는 보온덮개를 다시 덮고 했다. 일은 귀찮고 하기 싫었다. 더군다나 일을 하면 칭찬을 해줘야 일할 맛이 나는데 할아버지는 칭찬에 인색했고 깔끔하게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셨다.

4대 손 가족들이 재실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곧 할아버지의 술주정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 술주정은 유별났다. 평소 조용하고 말 수 없는 할아버지는 없고 얼굴을 붉힌 재마구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할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동네 초입부터 소리가 들렸고 할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는 걸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린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두려웠고 뱀이나 고양이 앞에 생쥐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꼭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 할아버지가 술 먹는 거 싫게?"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할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나를 찾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로 나를 찾는 거였지만 실상 자신의 쌓은 분노를 나에게 푸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와 나, 동생은 담을 넘고 자주 도망을 갔다. 이런 생활에 이골이 난 할머니만 집에 남아 할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자리를 피하거나 "이렇게 술 먹으면 좋나?"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지만 다음 날 기억할리 만무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모욕감과 분노를 모두 뱀고 나서 잠 들었다. '성밖숲'에 있거나 성주 읍내를 돌아다니던 엄마와 나, 동생은 2시간 정도 지나면 집에 들어 올 수 있었다. 재실을 떠나기 전 까지 거의 매일 이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강자인 할아버지가 약자인 나에게 자신의 노년과 좌절감, 분노를 소리 지르는 형태로 뱉어 내는 것은 아동폭력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대학에 들어가고 몇몇 수업을 들으며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했는지 생각해볼 때(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어린 내가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증조할머니는 여섯 명의 자식을 두었다. 그 중 할아버지는 셋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위에는 두 분의 형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는 여동생 두 명, 남자 동생 한 명이 있다. 두 명의 형님에 비해 할아버지는 뛰어나지 못했고 소극적이었다. 그런 할아버지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으니 학교 다니는 일이었다.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에게 학교를 다니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 했다. 증조할아버지는 반대했다. 여섯 명의 자식들이 먹고 살려면 의무적으로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척 학교를 가고 싶었고 증조할아버지는 조건을 걸었는데 하루 일을 마무리 한다면 학교를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기쁘고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일을 마치고 학교를 갔다. 하지만 일과 학교를 병행하는 건 무척 고된 일이고 땅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할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6.25 전쟁이 있었고 그 불길은 조선시대 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직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 때문에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큰 형님은 전쟁의 여파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둘 제 형님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두 명의 형님들을 책임졌고 이제 그 형님들이 자신에게 물질적 보상이든 정신적 보상이든 해줘야 하는데, 둘 제 형님이 죽으며 남긴 작은 보상금만 남았고 그마저도 땅을 사는데 써버렸다.

증조할머니는 늦둥이를 낳았다. 그리고 늦둥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특히 증조할머니의 사랑은 특별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억울했다. 같은 자식인데 왜 나에게만 일을 시키고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을까? 동생은 이렇게 사랑하고 동생을 위해 다시 희생해야 하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욕망을 분출시키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 맨 정신이 아닐 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 만약 할아버지가 나와 반대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럼 할아버지는 고향을 질렸을까? 할아버지는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시대의 희생자일 수 있다. 그래서 동정어린 서선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맨 정신으로 다가가지 못했고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더 약한 나에게 풀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받은 강제적인 노동과 같은 의무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과격한 행동과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것도 또한 폭력이다. 할아버지는 폭력을 당했지만 폭력을 재생산했다. 이건 어떤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백전 직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경제적 터전이었던 땅을 팔았기 때문이며, 땅을 팔 이유는 엄마가 말하는 '참 풀리지 않는' 아빠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 가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다르게 아빠로부터 오는 불안감은 더 무섭고 저밀했다. 할아버지의 술주정은 그 "소리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빠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들어오거나, 유일한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엄마가 일을 나갈 때 이뤄졌다.

2가지 사건이 있다. 한 번은 아빠랑 아저씨(이 아빠) 그리고 몇몇 이름 모를 친구들이 아저씨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거기에 이가 있었고 이가 있으니 가까운 나를 불렀던 것 같다. 나는 이랑 논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이 집으로 갔다. 그러나 분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고 아빠는 내게 "옆에 앉아봐라" 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자리에 몇 시간 동안 나를 앉혀서 자신의 신체 한탄 아니 신체한탄도 아니고 "자신이 못 버디냐?", "내가 싫냐" 등 취조를 했다. 해가 뜰 때 왔으나 해가 지고 아빠의 술기운은 점점 돌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이 자리에는 죄인과 형사가 있는데 죄 없는 죄인에게 무지막지한 취조를 일삼는 사람과 죄인인 어린 자식이 있을 뿐이었다. 보다 못한 아저씨가 이제 그만 하라고 근우 너는 어른 가라고 이야기해도 아빠는 계속 나를 뇌주지 않고 "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제?" 등으로 협박까지 했다. 뺨 앞에 있는 생리의 심정을 다시금 느꼈다. 결국 일 마치고 나서야 이 취조는 끝났다. 그러나 취조가 끝남에도 아빠의 협박은 끊이지 않고 "야 앉아라.", "앉으라 했다." 소리쳤다. 아빠가 술을 먹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술주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오는 건 처음 겪는 경험이었고 이런 아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5학년 때 검도를 배웠다. 죽도를 들고 내지르고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상대방과 겨루는 행위 등 얼마 다니지 않았지만 좋은 관장, 사부님 밑에서 검도장을 다니는 게 재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검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큰 방에는 아빠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다. 아빠가 술 먹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려니 했다.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써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렸다. 나와 이는 작은 방에 있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인사가 곤히 자던 아빠를 잠에서 깨게 만들었고 이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잠에서 깬 아빠는 나와 동생에게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고 우리는 검도장을 다녀왔다고 했다. 아빠는 '그래?' 라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검도를 좀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죽도를 가져왔다. 그런데 술 취한 아빠를 보면 겁나고 식은땀이 났다. 그리고 다 큰 성인어랑 아직 초등학교 5학년 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죽도를 가지고 겨룬다는 건 변하지 않은가? 결국 내 죽도를 이렇게 저렇게 치던 아빠는 가만히 있는 나를 보며 "하고 싶지 않냐?" 라고 대답했고 나는 "네" 라고 답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빠는 우리 죽도를 빼앗고 "이것도 못하면 뭐하러 검도장 다니냐"고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한 뒤 허벅지를 이용해 죽도를 두 동강 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아궁이에 죽도를 넣고 불을 지켰다. 죽도는 정말 잘 타오르고 우리는 무서워 울었다.

다행이 끝나고 엄마가 왔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엄마와 살전을 벌였다. 아빠는 취한 상태로 엄마와 몇 마디 주고받더니 읊내로 가버렸다. 어린 우리는 엄마가 와서 안심 되었는지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했다.

이후 예산리로 이사를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재실에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아파만은 끝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파의 술주정은 계속 되었다.

아빠는 할머니의 여섯 명의 자식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러나 첫째 누나가 돌전에 죽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첫째는 아버가 되었다. 언어는 타인과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 수단인 체계체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슬픔을 담아내는 여러 언어적 표현 중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언어적 표현이 거의 없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그 슬픔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언어적 맥락도 담아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에게 있어 물 전에 죽은 자식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했고 그 아픔은 평생 몸과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다. 또한 자식을 잃은 슬픔에도 할아버지를 비롯한 주변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은 할머니의 상처를 곱아 티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버는 어릴 때부터 영특했다. 6살 이전 전자문을 빼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손 중에서도 존인 직산 마을이지만 몇 백 가구가 살았던 동네에서 공목대장 노릇을 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집 안의 장손에다 똑똑하고 사람들을 이끌 줄 아는 리더십까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특히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서누이들 남들한테는 싫은 소리 못하면서 가족한테는 모진 말을 일삼는 남편 거기다 첫째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진 할머니에게 아버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자식을 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정의 표시였다.

누구도 아버지에게 손댈 수 없었고 손대지도 않았다. 그렇게 아버는 부족함 없이 컸다. 귀한 계란 반찬이 있으면 장손에게 먼저 올라가듯 좋은 거는 우선 아버를 거치고 다른 자식들에게 전달됐다. 이런 아버의 승승장구는 20대 후반까지 계속됐다. 흰집한 키와 남자답게 생긴 어묵구비는 학창 시절 주변 여학생들이 몰래 짝사랑하기 충분했고 전문대를 나왔지만 그래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았던 그 때 전문대라도 어디인가. 게다가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건축학을 전공했으니 대학 이름은 떨어져도 아버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다. 군대에서도 아버는 뛰어난 신체능력을 바탕으로 육군정보사령부(현재 국군정보사령부)에 입대했다. 보직은 헌병대였는데 할머니 집에 자랑스럽게 헌병대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성공을 달리던 아버는 건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몰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안 그래도 몰리지 않는 사업은 IMF가 터지고 나서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장남의 위기를 돕기 위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았지만 모든 것을 내준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력은 끝내 아버를 구하지 못했다.

아버는 옛 영광을 붙잡고 놓지 못했다. 그래서 30년 동안 수많은 실례로 얼룩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유아적이다.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아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발버둥 쳤다.

#### ※IMF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

① 1997년 경제위기의 대명사로 알려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당시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나라에 고금리정책,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공부문에 대한 영리화 등을 포함한 각종 요구를 해왔다. 그 밖에 몇 가지 풍경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① 대기업 부도 : 세계 서열 4위 대우 부도를 비롯해 한보그룹, 진로그룹, 기아그룹, 해태그룹, 쌍용그룹 등이 무너졌다.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이때 망했다.

② 실업자 속출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듬해인 98년, 127만명이 일자리를 잃었

4) 『20년 전, IMF사태를 겪었던 한국의 놀라운 풍경 7가지』, 《이포포스트코리아》

으며 실업자 수는 5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세배 가까이 뛰었다.

③ 주식시장 반의 반토막 : 95년 WTO 당시 1200선에서 근접했던 코스피 지수는 97년 12월에는 400선을 뚫었고 이듬해 6월에는 280까지 떨어졌다.

④ 원-달러 환율이 2000원에 육박 : IMF 이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800원 초중반대였다. 당시의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선 고평가되었던 원-달러 환율은 IMF 사태 이후로 견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된다. 1997년 12월 23일에는 1.962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당시 급격하게 상승한 환율 때문에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고 한국에 있던 대학생들도 휴학을 하거나 군입대를 자원해, 당시 입대를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기도 했다.

⑤ 집값 폭락 : 국민은행 자료가 따르면 1998년 한 해 동안 집값은 평균 12.4%, 전세금은 18% 넘게 떨어졌다.

⑥ 금리 대폭 상승 : 당시 사람들은 불안해서 현금을 쥐고 있었고 돈이 시중에 잘 돌지 않았다. 당시 은행은 1년 확정금리 20%, 3년 65%를 내걸기도 했다.(지금 시중 은행 금리가 1~2%) 자본유출을 막아야한다는 명목 하에 강행된 고금리 정책은 국내 기업과 가계에 엄청난 피해를 강요했다.

⑦ 금모으기 운동 : 3백만 명 이상이 참여한 이 금모으기 운동엔 금 200톤 이상이 모였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이파가 어느 정도였나면, 98년 초 국제 금값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 이성친구

학교에 들어갈 때 많은 것이 새로웠다. 그러나 가장 새로운 건 지금까지 동성친구만 있던 관계에서 이성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성 친구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여자사람 친구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것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친구 그 이상 느껴지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바뀐다. 그것도 포르노물 때문에 말이다. 이당 학교는 다르지만 계속 천하게 자랐던 나는 주말이 되어 '이 집에 놀러갔고 거기서 '노랑머리'로 불리는 '포르노물'을 처음 접하게 된다. 어린 내게 성은 보이지 않는, 없던 세계였다. 아با와 엄마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 엉킴 가부장 집은 철저히 성을 숨겼다. 그런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우연히 접하게 되고 묘한 흥분감과 신체적 변화(음경이 발기되는 경험)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함께 포르노물을 봤던 다른 친구들은 좋아서 그 영상을 찾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큰 상처가 되고 무시되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성은 언제나 숨겨야 하는 집안의 분위기, 성 상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 안과 밤의 제도적 시설은 내게 묵언을 강요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겁이 났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이성친구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포르노 사건이 있고 나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도저히 같은 친구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표현도 더욱 시뮬러졌다.

컴퓨터가 한창 유행이었다. 밤에 놀았던 우리는 어느 순간 PC방이 익숙했고 스타그래프트(블리자드가 만든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카르마 온라인(FPS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디아블로2를 했다.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

터가 보급되었고 우리 집에도 얼마가 바리 공장을 그만두고 국수공장에 취직 후 첫 월급으로 컴퓨터를 칭찬해 줬다. 학교도 컴퓨터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10년 뒤 '싹다운'제도를 만들어 과도한 컴퓨터 사용을 금하는데 참 아이러니다.) 컴퓨터실과 컴퓨터 수업이 생겼고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알려주는 선생님도 계셨다. 그리고 '에듀모아'라는 사이트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미니 홈페이지(그 이후 싸이월드가 유행이 되었다. 처음 접했던 SNS)였다. 에듀모아는 가상의 공간에 아바타가 있고 자신의 방이 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거나 돈을 내면 맛있는 아바타도 꾸밀 수 있고 BGM(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다. 나는 게임으로 가상공간을 처음 접했지만 '에듀모아'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아바타를 꾸미는 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반 친구 누가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척 신기했다.



그림 11 당시 유행했던 '에듀모아' 미니 홈페이지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 나는 몸으로 반응이 먼저 오는 것 같다.(가슴이 두근거림, 얼굴 붉어지는 등 이걸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건가?) 4학년 때 만난 수연이가 그랬다. 하지만 무척 소심하고 겁이 났던 나는 도저히 현실에서 말을 걸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관심 없는 척 하며 멀리서 지켜보는 것 뿐 이었다. 그런데 수연이가 자주 '에듀모아' 사이트에 들어왔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연이 이름이 뜨기만 기다렸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쪽지 기능으로 수연이에게 말을 걸었고 다행히 수연이는 이상한 내 답장을 받아줬다.

수연이와 나는 어린 처럼 이야기를 했다. 묻는 사람은 내가 주었고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참 쓸데없고 전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며칠 대화를 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은 초등학교 시절 그래도 기쁨의 순간을 찾으면 이 순간으로 생각하는걸 보니 가상이지만 수연이와 대화를 나눴던 게 무척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날도 다른 날처럼 수연이를 기다리며 '에듀모아'에 접속했다. 곧 이어 시간이 지나 수연이도 접속했다.(수연이의 접속 시간은 일정했다.)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그런데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쪽지가 왔다. "너 나 좋아해?"

지금도 그렇지만 영복하지 못한 나는 내 감정을 숨기는 게 어렵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타가 많이 난다. 수연이도 별로 친하지 않은 반 아이가 친근한 척 굴며 행동하는 게 이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하는 건 어떤 의도였을까? 하지만 그 의도보다 더 중요한 건 질문을 받은 내 행동이고 상대방



이 내 감정을 알았다는 점과 내 감정을 계속 숨기고 싶었던 나는 레서는 안 팔 말을 해버렸다. \*아티\*나 너 안 좋아해"

복잡한 집안 사정과 달리 학교생활은 평범함 했다. 이성친구는 교류가 없었지만 동성친구들과는 활발히 지냈고 선생님 말도 잘 들었다. 학년은 점점 올라갔고 어느덧 5학년이 되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심했고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소심했던 나는 더 소심해졌고 그 동안 어렵지 않게 풀이했던 수학 문제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게 버거웠다. 그리고 대출할 때 빛의 이자가 쌓이고 쌓이는 것처럼 감정의 썩어가는 빨아만 갔다.

초등학교 시험이 중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학력평가라는 게 존재했고 개인의 학력 상태를 측정하는 이 검사는 무척 중요하게 다뤄졌다.(선생이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일정 이상 성적이 안 나오면 나머지 반이라고 불리는 모충반에 들어가거나 인지적 문제를 이유로 특수반에 들어갔다.

한 학기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국어, 수학 순으로 시험을 쳤고 시험이 끝난 후 바로 마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학 점수를 확인했는데 형편 없었다. 쪼저 40점 이상은 말아야 되는데 40점이 되지 못했다. 곧 나는 앞으로 불러갔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2명 친구들도 불렀다. 그리고 반 아이들 앞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함에 대한 선생의 꾸짖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꾸짖기보다 본인이 어디서 받은 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더 참을 수 없는 건 꾸짖는 선생의 이야기보다 반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 빛 이었다. 동정과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음을 다행이로 느끼는 눈 빛,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린 사람처럼 바라보는 눈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줬다.

## ○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

초등학교 때 학교 안에서도 무섭기로 유명한 선생이 있었다. 그 선생은 복도에서 뛰거나 시끄럽게 떠들면 자신의 담당 학생이 아니라도 팔려 벌을 세워 호되게 꾸짖었다. 성장기를 겪지 않은 초등학교생들의 몸과 비교할 때 대개 담임선생들은 무척 거대해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꼭 다운 입술 사이로 나오는 그녀의 호통소리는 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일까 싶었다. 또한 눈을 크게 치켜뜨고 우리를 바라보면 육식동물 앞에 서 있는 한 마리의 초식동물이 되자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무서움은 인근 학교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배정 되었고 10분 전까지 전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던 그 선생은 10분 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이 되었다.

그녀와 대면한 우리는 모두 얼어 있었다. 그래서 선생은 초반부터 우리를 잡거나 꾸짖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그녀의 기세에 굴복해 있었고 그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했으니까. 그녀의 교육방식은 혹독했다. 학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쉬는 시간도 그녀는 생략한 채 전도를 나가고 공부를 시켰다.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머지 수업을 하는 것은 일상에,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하면 호된 꾸지람을 들으며 체벌을 가했다. 학생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성적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

1/4의 확률로 최악의 선생이 된 우리는 공통된 생각은 운이 더럽게 없다는 것이고 저 거대하고 무자비한 독재자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감정은 '동반상련'이었다. 모

는 친구들이 친한 건 아니지만 왕따도 없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도 없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반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반 분위기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

인기 있는 어떤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열광한다.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이나 한국인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박지성이 그랬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는 '달리기'였다. 가장 빠른 아이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었다.

방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을 선호했던 나는 여기저기를 다녔다. 거기다 아빠와 엄마가 준 건강한 유전자를 바탕으로 또래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었다. 나는 이 능력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년 대표선수로 활약했다. 그러나 1학년 이후 다른 친구에게 자리를 넘기고 가을 운동회 때나 능력을 발휘하여 공책을 따오는 게 고작이었다. 동경어린 시선으로 가장 빠른 아이가 되고 싶었지만 그건 막연한 동경이었을 뿐이다.

초등학교 5학년 학력평가 사건 이후 나는 더 소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변하고 싶었다. 소심하고 조용한 나를 바꾸고 싶었다. 달리기 연습을 시작했다. 스스로 목표를 잡고 연습했던 건 그 때가 처음이었다. 연습을 오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체적 성장기와 맞춰 달리기 실력은 늘어갔고 6학년 전체 반이 모여 체력 검정을 할 때 나는 가장 빠른 아이가 되었다.

전성기란 단어의 의미는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를 나타낸다. 이것 개인에게 적용하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척도 예를 들어 '부'나 '명예'의 정도에 따라 전성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나의 전성기는 이때가 아니었을까. 물론 부는 없지만 명예로써 나는 가장 빠른 아이가 되었고 학교를 넘어 성주군 대회도 입상함으로써 성주군 안에서 가장 빠른 아이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최경상으로 명예를 얻었던 순간은 대회 입상이 아닌 가을운동회 계주를 했던 순간이다.

가을 운동회는 초등학교 때 했던 가장 큰 축제였다.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들은 여러 날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보호자들은 일을 쉬고 운동회에 참여했다. 단체 경기는 1반과 3반은 청군으로 2반과

4반은 백군으로 나눠 각 학년마다 경기를 했다. 이기면 점수를 얻고 저도 일정 이상 점수를 받았다. 개인 경기는 달리기와 멀리뛰기 같은 육상 종목 위주로 열렸다. 1등 - 3등까지 등수에 들면 도장을 찍어줬는데 손이나 팔쪽에 도장을 받고 운동회가 끝나면 도장에 따라 상품을 받았는데 대부분 공책을 상품으로 받았다.

팀 경기는 최종적으로 점수를 얻어 경기를 이겨도 부상이 없었다. 하지만 순수했던 마음에 학생들은 승부의 결과가 중요했다. 특히 이기는 팀은 기쁨의 순간이 운동회가 끝나고 곧 사라졌다. 그러나 패배자는 거울방학 전까지 패배자의 명예를 써야 했다. 패배자의 명예를 쓰지 않기 위해 각 학년은 매 경기마다 치열하게 승부를 벌였다.

그런 변에서 마지막 경기인 계주는 특별했다. 가장 큰 점수가 걸려 일말의 역전을 기대할 수 있고 각 학년 2명씩 대표로 가장 빠른 아이들이 나와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긴장감도 무척 컸다. 오죽하면 운동회 전체 게임을 지더라도 계주를 이기면 그래도 계주를 이겼다는 자존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만큼 가을 운동회에서 계주는 중요했다.

계주는 400m 운동장을 반 바퀴인 200m를 돌고 결승점에 끝나는 단순하면서 개인적 능력이 중요시 되는 경기였다. 경기 방식은 저학년에서 고학년, 여성에서 남성 순으로 진행했다. 당시 가을운동회는 내가 속한 정군팀이 계주를 저도 청군팀이 이기는 점수 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운동회 때와 비교할 때 긴장감이 떨어졌다. 하지만 계주는 특별한 경기가 아니던가. 상대팀과 큰 점수 차를 보인다고해서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 뛰어드는 없었다.

경기 출발을 알리는 총 소리가 울리고 각 팀의 응원 속에 첫 주자들인 1학년 여자 아이들이 뛰었다. 각 학년에서 가장 빠른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는 팽팽하게 흔들리고 곧 이어 남자 아이들이 릴레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까? 그만 바톤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바톤을 놓친 아이는 다시 바톤을 잡고 열심히 뛰지만 실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거리를 좁히기란 쉽지 않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갔지만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대로 경기는 바무리 될 것 같았다.

곧 이어 내 차례가 다가왔다. 이미 백군 계주자는 먼저 뛰었다. 마음이 편했다. 가장 빠른 아이가 되었던 체력 경쟁 경기서 스타트는 상대방이 빨랐지만 나는 따라 붙은 후 제쳤다. 누군가를 따라 잡는 방식이 익숙했다. 그리고 계주 경기는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팀이 앞서고 있지 않은가. 그냥 최선을 다해 뛰면 그 뿐이다.

바톤을 잡았다. 그리고 뛰었다. 마음이 가벼운 만큼 몸도 가벼웠다. 계주 전에도 많이 뛰었고 이것보다 큰 대회도 뛰었지만 지금처럼 몸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앞에 있는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결승에 끝났다. 계주 경기도 청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점수 차이가 너무 커 주최 측은 백군 팀에게 엄청난 응원 점수를 줬다. 그러나 그 응원 점수를 쥐도 청군팀과 점수 차이가 2배였다. 승리를 만끽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고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도 경기를 봤었던 얼마, 친구들은 고맙게도 그 순간을 기억해준다. 그러나 나의 전성기는 외부적인 의미에서 전성기였을 뿐이다. '가장 빠른 아이'가 되고 나서 모든 순간이 기쁨으로 얼룩지지 않았다. 오히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기 때문에 2인자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던 나는 '가장 빠른 아이'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렀다. 학교 밖도 불안의 연속인데(집을 기준으로) 학교 안도 마찬가지였다. 한 때 1인자였던 2인자와 매 경기 경쟁을 벌였고 경기를 할 때마다 불안과 싸워야 했다.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내 위치는 곧 뺏기



좋하고 더 이상 가장 빠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인기를 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그 독재자 같은 선생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우리의 동병상련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걸까?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락그룹 피아의 'my bed'를 최고의 노래로 생각했다.

막다른 길에 멈춰 서서 벌었던  
어둠고 혼자임을 느낀 그때  
어디에도 따스함은 없었어  
길에 걸려 모든게 두려웠고  
모든게 미나비일것 같아 난  
차마 난 손을 내밀수도 없었어  
난 누굴까 나 어디로 갈까  
어디서 멈춰 서있나 나의 바다여  
다시 꿈을 꾸는 나에게  
불같은 축복을 물어갈수 없는 길을 택했던  
조금도 망설임 없던 무모했던 때 내 걸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없었어  
소리쳐도 지독한 비웃음만 울릴뿐  
나 내게 물어 왜일까 난 어딜까  
초라한 뒷모습만 남아 난 누굴까  
나 어디로 갈까 어디서 멈춰 서있나  
나의 바다여 다시 꿈을 꾸는 나에게  
불같은 축복을 다시 부딪혀  
버려진다 해도 나에게 못다한 다짐은  
나 어디로 갈까 나 어디로 갈까 나 어디로 갈까 난  
물어갈수 없는 길을 택했던 조금도 망설임 없던  
무모했던 때 내 걸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없었어  
나의 바다여 다시 꿈을 꾸는 나에게  
불같은 축복을 다시 부딪혀  
버려진다 해도 나에게 못다한 다짐은  
이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공식적으로 가르쳤고 세계화 시대에 맞춰 영어 교육에 대한 중요도는 시골 마을 성주에도 퍼져갔다.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어린 나는 몰랐지만 영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래서 엄마에게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 했다. 어릴 때부터 자식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엄마는 없는 살림에도 기꺼이 영어 학원을 보내줬다.

'미세스기' 영어학원은 분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조금 잘하는 애들이 모인 반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반이 있었다. 나는 그렇지 못한 반에 들어갔다. 잘하는 애들 반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복습

을 했고 먹고 살기 바빴지만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 영어 실력이 오르는 게 조금씩 느껴졌고<sup>5)</sup> 곧 있으면 잘하는 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생 수는 줄었고 잘하는 반과 그보다 못하는 반이 합쳐지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무리에도 끼지 못하고 있던 나는 '미세스키' 영어 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친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던 중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지독하게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한다. 책 읽기는 따분하고 지루한 활동으로 생각했던 나는 친구들에게 '책 읽기가 재미있어.' 라고 물었고 시간이 좀 지나 내게 책을 추천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친구들은 나를 비디오와 만화책이 있는 '스피드 책 비디오방'에 데리갔다. 거기서 「레이젠」이란 게임판타지<sup>5)</sup> 소설책을 처음 접했다.

초등학교도 공부는 중요하지만 중학교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뛰어들 수 있는 자유를 점점 잃어갔다. 집 안 환경도 과거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했다. 하지만 '스피드 책 비디오' 방은 이런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우리들만의 아지트였다. 우리는 여기서 만화책, 무협지, 판타지 소설을 빌려 더럽지만 안락했던 소파에 앉아 열심히 자기만의 세계로 빠졌고 편안한 인상의 책방 아저씨는 삼촌처럼 친근하게 우리를 대대했다. 하지만 부모님 특히 엄마는 이런 내 모습을 무척 싫어했고 엄하게 다스렸다. 아마 신혼시절부터 퇴근하고 나면 만화책 방에서 시간을 보냈던 아빠 때문에 더 민감하게 행동하신 것 같은데 판타지 소설을 읽는 나를 보면 동생과 싸워서 혼냈던 만큼 크게 꾸짖었고 때로는 책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엄마의 강경한 처방에도 '스피드 책 비디오'방을 그만둘 수 없었다.

'스피드 책 비디오'방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풍의 장소이자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배춧구이기도 했다. 나는 취향이 확고했다. 세상을 구하는 선한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악한 주인공이 좋았고 시산혈해가 상상되는 피가 튀고 살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이 나올수록 더 몰입했다. 대표적으로 「장마」, 「심전제」, 「사피로」, 「헬릭스」가 있다. 이런 내 취향에 친구들은 특이하다고 이야기할 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에 내가 그때 나를 되돌아보면 성격 파탄자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주인공을 좋아했던 이유는 첫째, 자신을 가로 막는 답답한 세상을 파괴하는 주인공이 멋져 보였고 둘째, 그래서 대리만족이지만 어쨌든 속이 매우 시원했으며 셋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범생에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지만 그 가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예를 들어 조용하게 거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부모님 및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행동들)을 즐겼고 넷째,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이면을 간접적으로 투사했다고 볼 수 있다.

공부에 큰 흥미가 없던 나는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이미지 때문에 공부를 놓치는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 중 반 이상 공부할 의지가 없어 전체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간혹 흥미가 생기는 과목은 최상위권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했다.

이런 내게도 흥미를 끈 과목이 하나 있었다.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지구과학이다.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지구과학과 같이 특정 과목을 정해놓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물, 화학, 물리 등이 나왔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지구과학이 그 범위 안에 들었던 것 같다.

다른 과학 시간과 달리 별자리를 배우고, 달과 행성, 태양계를 배우는 그 시간이 좋았다. 얼마나 좋았으면

5) 한국의 장르소설 중 하나 온라인 게임을 소재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수업이 끝나고 한 번도 질문 한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달의 모습이 보이지는 현상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라고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하는 질문을 던졌을까. 과학에 대한 흥미는 성적이 '양'이 아니라 간혹 '우'에 머물렀던 내게 '수'를 안겨줬다.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좋게 봐준 선생님은 당시 몇몇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로봇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무척 재미있게 작업을 해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고 어디에 재능이 있는가?' 등 자아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던 시기 나를 과학을 통해 흥미에 대한 답을 채울 수 있었던 나는 당시 꿈도 '로봇 개발자'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로봇반이 다음 학기부터 흐져부지 되고 말았다. 아마 우리가 고등학교 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이 되고나서 학교는 교육청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학생들을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시키기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월말고사 같은 당장 고등학교 전학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고 예산 부족의 이유로 로봇반은 운영되지 않았나 유추할 따름이다. 이 같이 바뀐 학교 정책으로 누군가의 꿈 또한 흐져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 또한 흥미 그 이상으로 가지 못했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았던 삶이 익숙했다.

'동물의 세계'가 힘의 논리, 양육감식의 법칙이 지배한다고 볼 때 중학교 시절도 '동물의 세계'로 비슷하게 흘러갔다. 힘이 센 아이 곧 싸움을 곧 잘하는 아이들은 최상위 계층에 군림했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학교 규칙을 자주 어기곤 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말 혹은 안에서 선생들 몰래 담배를 피기도 했고 다른 학교와 자주 싸우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은근히 무시했다. 중학교에서 나를 아이들의 생활태도를 관리한다는 체육 선생도 떠돈다는 이유로 반 전체 아이들의 영당을 실내용 하키체로 때린 적이 있는데 흔히 노는 무리 한 친구가 경찰에 연락해 학교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지 못했고 학생들의 사회화 교육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나 또한 이 세계에 점점 적응하고 있었다. 1학년 초기 비속어를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는데 어느 순간 지기 싫어서 혹은 나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았던 모습 중 하나는 가장 아래 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며 안됐다는 생각과 한편으로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내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며 안심했던 나였다. 가장 아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특수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위는 '여성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계층있는 건 그 친구들을 가장 괴롭혔던 친구들은 최상위 계층 친구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위에 있는 친구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반면 그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친구들을 괴롭혔다.

특수반 아이들과 일반 아이의 차이점은 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는 신체적 급성장과 맞물려 정신적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 모습에서 확인된다.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아이들도 종종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여성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던 아이들은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는데 재미있는 건 괴롭힘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학교 국어 시간 일본장수를 읽어보고 몸을 던진 '논개'를 배웠다. 기생으로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녀의 희생정신을 배우며, 그녀가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친구들은 '논개'가 실천한 '살신성

6) 당시 성적평가방식은 높은 순으로 '수우미양가' 순으로 이루어졌다.

인'보다 기생이라는 이미지가 더 중요했다. A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다른 남자아이들에 비해 목소리와 얼굴선도 가늘었고 말이나 행동도 부드러웠다. 흔히 '미소년'이미지가 떠오르는 친구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 때문일까? 친구들은 A를 여자 같다고 놀렸고 논쟁을 배운 후 a는 '논개'가 되었다. 그리고 논개의 기생 이미지 때문에 A를 "따먹는다." "같이 자자" 같은 식의 성추행 언행도 거부감 없이 사용되었다. 나는 이 같은 친구들의 행동이 많이 이상했고 볼 때마다 불편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어느 날은 친구들에게 "그만해라. 장난이 너무 심하다.", "너무 한 것 아니냐?" 등 말하며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장난은 멈추지 않았다. 괴롭힘을 당하는 A의 소소한 반항이 있지만 A가 묵묵히 참고 지내는 것이 눈에 보였다.

하지만 A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인기도 좋았다. 친구들은 A를 놀렸지만 언제나 A에게 관심을 가졌고 주변을 서성거렸다. 아마 A가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았기 때문에 A를 괴롭히지만 친해지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A와 비슷한 면을 가진 B친구는 괴롭히는 정도가 A와 구별되었다. A의 괴롭힘은 장난 정도였다면 B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은 폭력이었다. 얻어맞고 돈 뜯기고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 빈번했다.

A와 B의 차이는 제3자인 내가 볼 때 성격의 '좋은'과 '나쁜'의 차이였다. 그러나 그 차이로 인해 B는 모질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로 전락한다. 아이들은 신체적 능력(곧 힘으로)으로 계층을 나누고 구분 짓는다. 또한 성격이라는 요소도 힘의 논리에 편승된다.

## ○ 학교란 이름의 감옥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이 감히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을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그림 14 SNS에서 유행했던 문구

고등학교 진학은 크게 2가지였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당시 분위기는 공부에 전혀 뜻이 없어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분위기였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정말 성적이 좋지 못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거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부모도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동의했을 소수의 친구들만 진학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성주고등학교, 가천고등학교로 아주 소수의 친구들만 김천고등학교나 거창고등학교를 갔다. 실업계의 경우 좋은 친구들은 구미에 있는 구미 전자고등학교나 금호공업고등학교를 갔다. 구미전자, 금호공고에 낼 성적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성주에 있는 명인정보고 진학했다.

동물의 세계였던 중학교 분위기는 공부에 집중하기 매우 어려웠던 환경이다. 거기다 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매우 어려운 교과 과정과 학교 정책은 어느 친구들도 마관가지겠지만 공부에 큰 흥미를 주지 못했다. 그래서 공부에 뜻이 없다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 빨리 돈을 버는 게 나은 선택으로 보였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부모님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상주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나 또한 새로운 환경(실업계 고등학교로 간다면 구미전자고로 갔을 것이다)에 적응하며 학교를 다니는 건 두려움이 있어 내 의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큰 불만이 없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선행학습 형식으로 신입생을 모아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 맞춰 장학금을 줬다. 장학금은 전체 성적보다 특정 과목을 잘하면 상을 줬던 시스템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운 좋게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들어갔다. 하지만 입학 성적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받은 최고 성적으로 남게 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이 다른 것처럼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많이 달랐다. 고등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입시기관으로 학생들을 관리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선행학습은 내가 겪는 학교의 입시 시스템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후 0교시 시스템<sup>7)</sup>,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후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심야학습, 토요일은 오전 수업 후 오후에는 자율학습, 방학에는 보충학습이 이뤄져 7일 방학이 이뤄졌고 기숙사에 머문다면 쉬는 날에도 자율학습을 이유로 학교에 나와야 했다. 선생들도 매 순간 우리를 감시했다. 공부 외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참고로 상주고등학교는 공립학교였다.

언제나 적응의 순간은 힘들었지만 야간자율학습까지 병행하는 고등학교 시스템은 특히 힘들었다. 그러나 공부를 놓지 않았던 건 어떤 목표가 있기보다 학생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였다. 또한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함으로써 엄마에게 짐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는 마음과 오르지 않는 성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급해졌다.

고등학교 2학년 기숙사에 들어갔다. 집에는 공부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친한 친구들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기숙사 생활을 해보고 싶었다.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기숙사 2층을 사용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년별로 1학년은 3층, 2학년은 4층, 3학년은 5층을 사용했다. 기숙사 방 배정은 성적순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끼리 따로 방을 사용할 수 없었다. 기기가 12시가 되면 군대처럼 점호를 통해 인원을 확인했다. 점호가 끝나면 사감 선생은 야간 순찰을 돌았다. 순찰 중 불시에 호실로 들어가 호실 인원을 확인했는데 우리들은 그 때마다 배란다 난간을 이용해 다른 호실로 넘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높이다. 거기서 떨어지면 분명 팔,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사감 선생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웠던 시절이었다.

이는 '비세스키 영어학원'을 함께 다녔던 친구다. 초반에는 서로 얼굴을 알았는데 내가 판타자와 무협지를 읽으며 급격히 권태졌다. 이는 소설에 빠져 있었다. 한 권 빌리면 800원이 들었던 대여료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는 책방에 지불한 돈이 100만원 단위였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의 책을 읽어냈다. 그러나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기도 하다. 이런 이랑 고등학교 2학년 기숙사에서 한 방을 사용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의 집안 사정과 고민을 이야기한 친구이기도 했다.

흔히 자기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과 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선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주기를 원한다. 사랑의 감정은 아니지만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 너는 내 옆에 있어야 하는 이걸 우린 집착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에게 자기고백을 이야기한 후 일반적인 친구들과 맺는 우정이 아닌 보다 깊은 진정한 우정을 함께 나눴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생각

7) 학교 수업은 8시 30분부터 시작했다.

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수장을 나눴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내 욕심만큼은 아니었다.

이는 유독 한 친구에게 달라붙었다. 달라붙는 친구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지 혹은 신경 쓰지 않은 건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나는 짜증이 났다. 이의 신체적 스킨십은 나도 내키지는 않지만 항상 붙어 있는 그 옆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또한 붙어 있는 친구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나는 결국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본인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그의 답을 듣고 나는 서운함을 지울 수 없었다.

서운함을 직접 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점심도 같이 먹으려 안 가고 저녁 시간 노는 것도 같이 놀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고 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용기도 부족했다. 사실 문제는 내게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면 되었는데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가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한 집착을 인정, 내가 이에게 원했던 여러 행동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낸 욕심임을 말이다. 시간이 흘러 감정이 가라앉고 위와 같은 부분을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 오전 7시 전에 학교를 등교하고 새벽 1시까지 자율학습을 끝낸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러나 성적은 조금 오르거나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제자리에 머물렀다. 딱 원하는 대학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다. 그러나 3군데 수시 원서를 모두 탈락하고 마지막 남은 수능마저 지금까지 쫓던 모의고사 중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말았다.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실망감은 컸다. 아빠는 공부를 했네, 안 했네 같은 이미 지나간 과정을 가지고 내게 잔소리를 했고 엄마 또한 아쉬움을 지우지 않았다. 친구들은 동경어린 눈으로 나를 봤고 나는 그 동경어린 시선이 답답지 않았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기뻐다. 중학교부터 시작된 족쇄가 풀렸다. 이걸 자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짐을 벗어 던졌다.

## ○ 대학을 온 이유

자유를 얻은 건 좋지만 어쨌든 나는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혹은 전문대로 진학해서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 고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선택은 금방 이루어졌다. 이 선택의 물도 주변의 입김이 컸다.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유달리 챙겼던 분이다. 당노가 있어 매일 산책을 했고 먹는 것도 혈당에 영향을 주는 쌀밥 종류 대신 보리나 현미로 드셨다. 약도 꾸준히 받아 의사선생님 말대로 먹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환자였다. 그러나 병환길에 넘어져 팔 수술을 받던 중 폐암을 알았다. 그것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폐암 4기였다.

할머니는 살기 위해 그 아프다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근근이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폐암을 확인하고 2년 만에 결국 숨을 거두셨다. 할머니는 끝내 암세포가 머리까지 퍼져 엄마를 제외한 모두를 기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말로 날카롭게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던 시어머니였다. 그런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했던 존재가 엄마라는 게 신기하다. 어쩌면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엄마라는 걸 알았던 게 아닐까.

1월 23일 할머니 장례식이 열렸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고 할머니의 죽음을 잠깐 슬피했다. 그리고 우리는 3박 4일 중 대부분을 산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눴다. 어떻게 지냈나와 같은 걸 차례 인사를 넘어 자식을 문제까지 넘어왔다. 특히 이번에 수능을 치른 내 진로는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였고 ‘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주장과 ‘그래도 전문대학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일반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가족 중 일반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반대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진구아저는 대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우리 가족 가까운 친척 중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그래도 4년제 대학을 합격했으면 거기에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다른 주장들을 압도했다. 나 또한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대학이란 환경에 들어가고 싶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대학을 다니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진구아저의 주장과 내 선택에 힘입어 나는 대구대학교 사회학부로 진학하게 된다.

## ○ 20살 대학 생활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

대구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기 일주일 전 스스로 다짐을 한 게 있는데 바로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면 환경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때 여자들에게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관심 있는 여자에한테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만남에 있어 ‘안녕’이란 인사는 먼저 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무척 크다는 걸 대학 다니면서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질수록 어려움은 조금씩 생겨났다.

초,중,고를 다니며 나보다 학년이 높은 흔히 ‘선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나와 그들의 교류는 거의

있었다. 그래서 비슷한 또래지만, 학년의 차이로 구분되는 '선배'라는 역할의 사람을 처음 대면하고 '한단' 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다. 선배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다. 어렸거나 1살이라도 나이가 많고 나보다 지식도 많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보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어린 존경이었다. 이런 모습에 몇몇 친구들은<sup>8)</sup> "너무 똥보 빠는 거 아니야"라며 아부를 떠다고 생각했고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경도 시간이 지나 선배들의 실체를 알아갈수록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걸 알아갔다. 그들로부터 내가 대학에 온 목적인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에 듣고 싶어 동아리나 기타 정보를 물어보면 "우리 대학은 그런 거 없어"라는 대답만 들었다. 함께 술자리를 가지 이야기하면 '술 게임'만 했고 술을 몇 병 먹었는지 중요했다. 군대를 갖 복학한 선배들은 자신들이 배운 군대 문화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바빴고 다양한 사람보다 학과 생활을 하는 선배들만 마주쳤다. 거기다 선배들은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했다. 가을 농촌봉사 활동을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하는 경우,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자취방에 찾아와 술을 먹는 경우, 늦은 저녁에 전화로 불러 술을 먹는 경우 등 비상식적인 일이 선배라는 이름으로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리고 어리숙하고 자기 주장이 약한 나는 달하기만 할 뿐이었다.

성주 여자 중·고등학교는 정유장 부근에 위치했다. 성주중학교는 그와 반대편인 초전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고 성주고등학교는 성주읍과 도보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다. 초등학교 이후 자연스럽게 이성과 만남은 단절되었다.

대학을 다니며 과거 단절되었던 이성과의 만남은 다시 이어졌다. 그리고 함께 수업을 듣고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자연스럽게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친구가 생겼다. 우연히 그 친구와 교양 수업을 함께 들었다. 1학년 수업 대부분은 선배들이 짜주는 대로 갔기 때문에 동기 대부분이 함께 들었다. 하지만 그 수업은 사회학과 1학년 학생이 나와 그 친구뿐이었다.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의 원인을 정신분석 이론으로 풀어내는 수업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은 폭력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 큰 흥미를 가졌다. 본격적으로 심리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졌고 이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이야기 했다. 그 친구도 상담사가 꿈이라고 이야기했다.

수업을 마치고 그 친구와 교내에 있던 카페를 갔다. 카페라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다. 그것도 이성친구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친구는 '카라멜 마끼아또'를 시켰고 나도 같은 것을 시켰다. '카라멜 마끼아또'는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단 음식이었는데 내가 먹어 본 네모난 카라멜 덩어리를 농축시켜 음료로 만든 것 같았다. 달콤했다. 그 친구는 이 단맛 때문에 카페에 오면 '카라멜 마끼아또'를 시킨다고 한다. 나는 너무 달았지만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달았기 때문에 굳이 내 의사를 솔직하게 들어내지는 않았다.

이런 지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 친구에게 남자친구의 유무였고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카페에서 '카라멜 마끼아또'를 먹지 않았다.

얼마 뒤 첫 연애를 했다. 그런데 이걸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친구랑 흐지부지 끝나 버리고 난 뒤 나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자주 술을 먹었다. 그리고 그 날도 기숙사에 있는 친구랑 술을

8) 아부를 떠 때 사용하는 속된 말.

딱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20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연애 이야기까지 나왔다. 얼마 전 이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뒤였지만 대학에 오면 연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코스로 생각했던 나는 어떻게든 연애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과 사귄 의향이 있다는 소극적인 방식의 짝짓기 방식을 부르짖었고 나를 좋아해주는 상대방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과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나는 결국 그 사람과 더 이상 새롭게 사귄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나버렸다.

같은 나이 동성관계는 어땠을까? 학교에 들어왔을 때 기숙사에 머물렀던 나는 기숙사라는 공간이 답답했다. 좀 더 놀고 싶은데 중간에 들어와야 하고 저녁마다 '층장'이라고 불리는 관리 학생이 찾아와 매 번 인원을 체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복도에 인원 확인 및 전달사항을 들어야 했다. 대학생이란 이름은 얻었지만 중,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관리와 감시에 불만이 있었던 나는 대학 동기들을 기숙사에 몰래 초대했고 간혹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시끄럽게 떠들고 놀다가 관리 조교한테 걸려 다음 학기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다.

여름방학 때 아빠가 일하는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떻게 모은 돈으로 친구 2명이 살고 있는 자취방에 끼어 살게 되었다. 친구 2명이 공대생이라 자취방은 평사리에 있었다. 평사리는 내가 수업을 듣는 사회과학대학과 비스모 3정거장 되었는데 걸으면 왕복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운동하고 교통비를 아끼는 걸 매일 걸어서 학교와 자취방을 오갔다. 자취 초기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학과에 불과했다. 1학기 때와 달리 2학기 때부터 서툰이전 학과 생활과 동아리 활동 그렇다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건 두려움이 있었던 나는 자취방에 오면 TV를 보거나 휴대폰 게임만 주구장창 했다. 거기다 5명도 안 되는 원룸에 성인 남성 3명이 사는 건 사소하지만 갈등의 연속이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는 배란다에서 재떨이로 이용하는 케트병이 꼭 할 정도로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 때문에 항상 피로했다. 또한 친구들은 술을 자주 먹고 술주정 부리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잠을 자는 것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나에 비해 친구들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집 안 일은 서로 미웠고 옷을 정리해서 두는 것도 신경 쓰였다. 결국 2달 뒤 평사리 자취방을 나왔다. 그리고 사회과학대 근처에 있는 내리리에 보증금 10만원, 월세30만원 자취방을 얻었다.

20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관계에 대한 미성숙은 여러 관계를 맺을 때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고 이것을 수습하고자 했던 잘못된 내 행동은 상대방과 나를 힘들게 했다. 또한 자유를 원했지만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그저 시간을 보내는데 급급했다.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던 생활태도는 결국 익숙함에 먹히고 말았다. 대학을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던 나의 목표는 방방한 게으름으로 잊혀갔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 ○ 군 입대 : 변화를 위한 준비의 시작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 건 또래 아이들이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나 또한 이 흐름에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 2012년 3월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에 들어갔다. 1년이지만 자유롭게 살았던 나는 자

용가 통제되는 군대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받고 소리 지르는 조교와 자기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귀를 씻는 송소리, 자기 힘에 도취되어 개념 없이 행동하는 동기까지 몸과 마음 때문에 일주일 뒤 군대를 떠난 형규, 대학이 가 부러웠고 먼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단했다

시간이 흘러 훈련소 생활도 익숙  
가 랜덤해서 잘해줬고 나는 짐과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자대 배치를 받았다.

구미 연대<sup>10)</sup> 안에서 주말을 보!  
씨<sup>11)</sup>에게 물어보니 여기에 배?

것인가 이곳에 남겨질 것인가 결정된다고 했다. 그 아저씨 말대로 끈이어 나를 포함해 몇몇 동기들은 신병 배  
치를 확정하기 위해 인사과로 갔다. 1차는 프로그램 시험 목적이고 2차가 진짜 배치라고 말해줬다. 나는 1차  
배정에서 상주 지역을 배정받고 2차 지역은 성주로 배정을 받았다. 이런 나를 군대 선임들은 너희 아빠 백  
있는 거 아니냐며 부러워했지만 나는 결과에 실망스러웠다. 결국 군대에서도 성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병 배치를 받으면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신고라는 것을 한다. 나는 연대에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연대에 가장 높은 연대장에게 신병 신고를 했다. 조금 특이한 연대장이었다. 보통 높은 사람이 인사를 받으면  
'잘 왔다 힘들지만 참고 이겨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줬다. 낙업 이야기였다.

9) 훈련소를 나오고 난 훈련병은 이동병 계급장을 받고 부대 배치를 받았다.  
10) 군대 편성의 하나로 대대의 상위 편제다. 연대장으로 보통 대령이 임명된다.  
11) 다른 부대 병사들로 고참도 후임도 아닌 관계를 지칭해서 썼던 은어다.

“나무의 잎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우리는 이것 낙엽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떨어지는 낙엽이 도시에서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좋은 거름이 된다. 군대를 온 너희들은 자의든 타의든 결국 군대를 왔다. 그리고 21개월이란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도시에서 버려지는 낙엽처럼 사용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에 좋은 거름으로 사용한다. 쓰레기로 사용할지 거름으로 사용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을 생각했던 나는 연대장의 낙엽 이야기가 깊이 와 닿았다. 그래서 목표 2개를 정했다. 첫째는 책을 100권 읽는 것 둘째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었다.

이동병부터 시작한 나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지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수 있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상급자 말을 잘 듣고 그들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

작대 배치를 받은 4월은 전차와 예비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 정비를 한창이었다. 그러나 전문기계 없이 오직 사람의 노동력으로 훈련장 정비를 해야 하는 군대 환경 상 현장 노동의 연속이었다. 군대를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힘들어했다. 나 또한 시멘트를 지고 벽도를 날랐다. 힘들고 빠르게 지쳐 갔다. 그러나 잔치를 부리지 않았다. 훈련장 정비 일과가 끝나면 땀으로 젖은 작업복을 모아 세탁기에 넣었다. 또한 청소 준비를 위해 미리 길레를 뿔고 아직 외우지 못한 선임들의 이름과 몇 월 군번인지 암기한다. 군대에서 한 달 먼저 들어와도 선임과 후임으로 갈라졌고 선임을 보면 경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활동하기 위해서는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모두 암기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름 인정받는 A급<sup>12)</sup> 후임이 되었다. 나 또한 A급이라고 칭찬을 받으니까 인정받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군 생활이 점점 적응할 때 나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나를 비어있는 군수와 행정계원 자리에 새롭게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곧 나는 이 소문이 진짜 사실이라는 걸 중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고민 되었다. 지금 인정받는 자리를 벗어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정적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내 선임들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기준에 맞춰 생각해볼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군수과를 담당하는 사람은 보급관<sup>13)</sup> 이었다. 보급관은 연대 안에서도 무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아무리 기가 센 병사라도 보급관 앞에서는 순한 양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1종과 3종<sup>14)</sup> 소모와 소모품 보충을 위한 청구를 올릴 때 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일이고 알려주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혼나고 꾸중도 듣는 것은 당연했다. 행정적인 일은 혼자 하는 일이 많았고 어디 하소연도 어려웠다. 군대 안에서는 마땅히 스트레스 풀 장소도 없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살이 찌는 건 당연했고 몸무게가 80KG에 육박했다.

시간이 지나 일병에서 상병으로 계급이 올라갔다. 계급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는 일도 익숙해졌다. 일에 익

12) 보급 받은 물건의 상태가 좋으면 A급이라고 표현한 것을 신병들에게 비유했다. 잘하는 병사는 A급, 못하는 병사는 폐급으로 불렀다.

13) 군대의 보직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보급급양관이다. 취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내가 나온 부대의 경우 군수 전반적인 업무를 보급관이 맡았다.

14) 군대 보급품으로 1종은 주·부식류, 3종은 식유와 같은 연료를 말한다.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계원으로 일했다.

속해전 만큼 보급관과 크게 부딪치는 일도 없어졌다. 또한 보급관도 상사에서 원사(진)<sup>15)</sup>로 진급하거나 직급가 생겨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농담도 자주 하였다. 나와 상급자의 관계는 원만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계급이 낮은 하급자관계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분대장<sup>16)</sup>이란 역할을 가질 때 계급이 주는 상·하 구조가 싫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위계구조를 벗겨내고 싶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길레를 짜는 행위는 언제나 후임들의 몫이었지만 자청해서 했고 그 밤에도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개인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다. 계급이 높은 친구뿐만 아니라 계급이 낮은 친구들도 위계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자격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했던 리더는 불합리한 일을 고치고 분대원의 고충을 듣고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제대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을까? 사실 분대장이란 직함에 만족해 내 것만 신경 썼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성주에서 군복무를 했지만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기 위해 위병소를 빠져나가 영미 차에 올라타면 이런 말을 했다. '정말 공기가 다르다' 엄마는 성주에서 군복무를 하는 아들이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가진 군대는 확실히 밤 공기와 안 공기가 달랐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외부와의 단절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특히 모두가 잠든 새벽 근무시간대 빈 A4종이를 꺼내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재능이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등 근무 시간은 자아를 탐구하는 시간으로써 버리는 시간이 아닌 거름으로 사용했던 시간이다. 또한 군인들의 빨간 낚은 모포나 쥘냥을 피고 시체처럼 쓰러져 잠을 청하는 날이지만 시간이 아까웠던 나는 식당에 배치되어 있는 전중문고<sup>17)</sup>와 잡지, 신문 등을 읽어갔다. 그리고 2가지를 정할 수 있었다. 하나는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 다른 하나는 '열정대학'이란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배낭여행은 레이퍼라는 잡지에서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소개 때 마음을 정했고 '열정대학'은 'TOP CLASS' 잡지에서 덕수병의 인터뷰를 보고 정하게 되었다.

15) 원사 계급에 진급해서 부대 배치를 기다리는 상태

16) 군대 부대현상에서 가장 최하위 조직. 보통 6-12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17) 대한민국 국군의 부대 도서관 혹은 도서실이나 생활관의 책꽂이에 비치하는 책들을 가리키는 군대 용어다.



제 3화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2014년 1월 ~ 2018년 12월

○ 웰빙테크 : 선임한테 당한 사기

2013년 12월 전역 후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다. 기어자동차 변속 기어를 만들어 납품하는 한국파워트레인이란 회사의 하청 기업이었고 만들어진 변속 기어에 기름칠해서 비닐로 포장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추운 날씨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건 힘들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건 '빨리빨리' 문화였다. 손이 접사지 못하고 빨리 하면 할수록 실수하는 건 내 주된 특징인데 공장에서는 이런 특징이 더 나타나 보였다. 일이 서둘수록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짜증은 늘어만 갔고 아저씨 한 분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셨다. 결국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 일을 그만두었다. 군대 전역 후 자있던 자신감을 볼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나를 더 힘들게 했던 일은 군대에서 만난 선임으로 다단계에 붙잡혔던 일이다.

전투병에서 행정계원으로 보직을 변경할 때 행정계원에는 상근병<sup>18)</sup>이 일을 보고 있었다. 고향 선배이기도 했던 상근병 H는 덩달고 자신의 행동에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에도 그의 성격은 벗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보급관의 호된 호통으로 돌아왔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안쓰러울 정도로 혼이 났다. 그가 전역하는 날에도 보급관이 제대로 된 인사를 받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고향 선배라는 인식과 내 사수라는 생각에 그가 전역하는 날까지 어느 정도 친밀감을 유지하며 지냈다.

전역을 앞둔 말년휴가부터 H는 내게 연락을 해왔다. 전역 후에 밥 한번 사겠으니 연락해라 이런 내용이었고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던 나는 전역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 후 몇 번 필요한 정도로 연락이 왔고 그래도 나를 사수있는데 만나는 게 도리 상 맞는 것 같아 동대구역으로 향했다. 2시간 걸려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한 카페에서 H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밥은 먹으러 가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카페에 있는 건물 몇 층에서 일하고 있으니 일하는 모습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순수했던 나는 자리를 잡고 일하는 그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 따라갔다. 그리고 그 날 차가 끊기기 전까지 나는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

나 말고 몇몇 사람들이 상담 비슷한 것을 받고 있었다. 함께 온 H는 자신의 회사를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온다며 조금 기다리라고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왔을 때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은 책상 앞에 놓여 있는 프린터 물에 화려한 사인으로 자신의 낙제임을 적고 본격적으로 다단계 회사인 '웰빙테크'를 소개했다.

내가 전혀 믿으려는 눈치도 아닌 상태도 아니고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안 H는 자기가 미안하다며 밥을 사주기 위해 근처 음식점으로 데리갔고 거기 있는 동안 전혀 모르는 2명의 성인 남성이 아까 화려한 사

18)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육군은 5주, 해군은 6주, 해병대는 7주)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4년 방위초집중제가 폐지되면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1995년 시행되었다.

언을 했던 직원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화를 내고 어떤 말을 해도 나를 토치하지 못하게 했다. 좀 더 강경하게 소리 지르고 말버둥치는 행동도 했어야 했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사람들 뜻대로 헬빙테크의 물건을 사는 것이었고 결국 제3금융 2곳에서 500만원의 금액을 받고 물건을 샀다. 군대 21개월 동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적금해서 100만원을 만들었는데 10분도 안 돼 돈 500만원이 내 손안에 생겼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도대체 돈이라는 건 뭘까?

환불이 가능한 조건으로 500만원의 다단계 물건을 샀다. 물건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했고 환불을 하려면 물건을 두고 가는 게 좋다는 헬빙테크 직원의 말에 나는 물건도 500만원도 헬빙테크에 두고 도망치듯 성주로 왔다. 집으로 가는 길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를 성장시킨 것 같은 나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절망감을 맛보고 난 후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엄마도 현금 500만원을 구하기 어려워 조금 시간이 걸렸다.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대충상환을 하고 보니 20만원 정도 이자가 나왔다. 공장에서 조금 모아둔 돈이 그렇게 쓰였다. 경찰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그래서 H에게 전화를 했다. 당장 환불을 원했고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말한 후 바로 끊어버렸다. 그 날 밤 헬빙테크에서 산 물건을 모두 환불받고 495만원을 돌려받았다.

한 달을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 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사회에 단절되었던 나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보호 받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2월이 지나고 3월이 오고 있었다. 복학을 할 것인가? 다시 배낭여행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마침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던 승집이에게 연락이 왔다. 경기도 오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공장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오산으로 오라는 연락이었다.

복학을 미루고 휴학을 유지했다. 지금 아니면 원하는 배낭여행을 못할 것 같고 배낭여행을 못 가면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 ○ 경기도 오산, 화성 :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준비

대구 북부정류장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탔다. 여행이란 목적으로 길면 일주일 정도 다른 지역에 머문 적이 있지만 그 외 단 한 번도 대구·경북을 떠나본 적이 없다.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첫 이주였다.

오산 정류장에서 승집이를 비롯해 형을 만났다. 현장건설은 특이한 구조로 운영되었다. 숙련공은 회사에서 주는 임금 그대로 받았지만 숙련공이 아닌 나 같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온 사람이나 일을 배우러 온 사람은 숙련공에게 월급을 받았다. 숙련공은 새로운 통장과 카드를 만들게 한 다음 그 카드와 통장을 자신들이 가지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그 통장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원금 월세,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돈을 줬는데 보통 30%를 떼서 우리에게 줬다.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같이 일하는 친구가 어느 날 사라졌다. 형과 형은 찾아가서 우리 돈 찾아야 한다고 막 이야기했다.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돈을 떼먹은 게 아니었고 그냥 정당하게 번 돈을 가져고 집에 간 거였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우리도 똑같은 일을 지지들까봐 일부러 겁주기 위해 강하게 말한 것 같다.



그림 17 화성 반도체 건설현장

날짜는 3월이지만 새벽은 아직도 한 겨울처럼 추웠다. 첫 날은 사설업체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을 받았다. 빙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면 현장근로를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둘째 날은 혈압검사를 했다. 삼성물산 주관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은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놓고 있었다. 한참 줄을 서서 혈압을 체크했다. 그런데 혈압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당황스러웠다. 권구형은 혈압이 높으면 여기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해졌다. 나는 기계 오작동으로 생각했고 다음날 아침 또 긴 줄을 기다려 혈압 검사를 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일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발급 받았다.

밖에서 볼 때도 큰 공장이었지만 안에 들어가니 그 규모는 지금까지 말한 어떤 공장보다 컸다. 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는 주차 전쟁이었고 퇴근 시간에는 서둘러 집을 가기 위해 차가 줄을 섰다. 그러나 퇴근 시간은 출근시간보다 막히지 않았는데 어떤 팀은 잔업과 야간작업을 하는 등 퇴근 시간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다.

사람들의 복장은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복장이 있는데 안전모와 안전화는 필수로 착용했고 안전띠는 경우에 따라서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안전모 역할을 구분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안전모 색에 따라 각 기능이 달랐는데 삼성물산 직원들은 하얀색 안전모를 착용했고 파랑색 안전모는 삼성물산 하청 회사 직원들과 안전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착용했다. 하늘색 안전모는 현장 근로자들이 착용했고 그들은 안전모, 안전화 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필수로 착용했다. 주황색은 현장 근로자가 일할 때 안전하게 일하는지 지켜보는 일을 하고 위험할 경우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대신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했고 젊은 남성 근로자 혹은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이 역할을 해냈다. 빨강색은 화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또한 빨강색 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얼굴만 씻고 5시 20분에 밖으로 나가 형의 차를 기다린다. 30분 정도 차를 타고 화성 삼성반도체건설현장에 간다. 주차하는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30분을 걸는다. 현장에 도착하면 밥바짐<sup>19)</sup>에서 회사가 준 아침 식사용 쿠폰으로 아침을 먹는다. 아침을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은 양면기지만 수세식이 아닌 제재식이다. 양면기에는 거품이 나오는데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만들고 양면기 주변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장치 같다. 하지만 거품이 안 나는 것도 많아 아침에 얼굴을 씻꾸리지 않으려면 운이 좋아야 했다. 화장실을 갔다 오면 아침 7시 30분 정도가 되고 아침 점호를 시작한다. 아침

19) 밥바(일본어: 飯桶)는 건설 현장 안에 지어놓은 간이식당을 부르는 말이다.

결혼 때 각 팀 별로 한 줄로 서고 인원을 확인한 후 삼성물산 직원이 나와 전달사항을 알려주고 아침체조를 한다. 체조가 끝나면 각 회사별로 모여 삼성물산 직원이 전달한 내용을 더 심각하게 이야기 한다. 전달이 끝나면 8시가 조금 넘었고 현장까지 걸어가면 9시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전기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혁이형과 전구형 그리고 일을 배우는 2명의 형들이 맡아 일을 했다. 일은 대부분 전기선 피복을 벗겨 전기선을 연결하거나 트레일에 전기선을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일이 바쁜 날은 자주 없었고 일이 힘들지는 않았다. 다만 오랫동안 현장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버티는 게 일이었다. 이렇게 오전에 일을 끝내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시간을 줬다. 우리 팀은 밥을 빨리 먹고 좋은 자리에서 자기 위해 서둘러 현장에 나왔고 형상은 아니지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1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지만 해야 되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않았다. 그렇게 저녁 6시까지 일을 끝내고 함바식당에서 저녁을 먹거나 식당 쿠폰을 이용해 빵이나 피자 같은 군것질 거리를 샀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면 저녁 8시가 넘었다. 잔업이 있을 경우 저녁 8시까지 1.5배 임금을 받고 일을 했고 그럴 경우 저녁 10시가 넘어 숙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한 달 4번 쉬고 4개월 정도 이 생활을 했다. 그리고 통장에 7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처럼 여행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취업 자금을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퇴 후 먹고 살기 위해, 현장 기술자를 선택해 일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가장 생각났던 사람은 아빠였다. 나와 아빠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못했다. 재산을 벗어나 예산리로 짐을 옮기고 나서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 술을 먹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가하는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나는 빔블을 놓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이 점점 미워졌다. 하지만 화성 현장노동을 통해 작지만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성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갔다. 또한 이 같은 노력이 내 상처를 조금씩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 터키 여행 : 물리적 공간의 확장, 초심자의 행운

6월까지 일을 하고 7월 터키 이스탄불 비행기를 탔다. 값이싼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했고 레이징에서 6시간 우부무처 국제공항에서 3시간 기다려 이스탄불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공항에 내려 낯선 땅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한 순간은 동아시아 사람들보다 중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부터다. 새벽에 내려 지하철은 운영되지 않고 낯선 땅에 내가 할 일은 없고 자연스럽게 공항에서 비박하는 처지에 놓였다. 게스트 하우스 픽업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이 무척 후회되었다. 몇 시간을 왔다 갔다 시간을 보냈다. 그랬더니 곧 지하철 시간이 다가왔다. 이정표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지하철 개찰구가 보였다. 복잡하지 않은 공항 시설에 감사했다.

몇몇 여행객은 나와 사정이 비슷한지 지하철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중 박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긴 두 사람이 있었고 혹시 싶어 말을 걸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었다. 특히 디기가 막힌 우연은 그 중 한 명은 고등학교 선배였다. 세상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형들과 같이 새벽 지하철을 타고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 시내로 향했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우리는 기대한 짐을 풀어진 채 전혀 다른 세계를 구경했다. 아야 소피아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에서 사진을 찍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짐을 풀고 강가 주변에서 바게트 빵 안에 고등어를 넣은 케밥을 먹었다. 관광지 주변에는 어린 거지들과 개가 많았다. 어린 거지들은 시리아 난민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알았고 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무척 컸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개가 어슬렁거리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행을 하다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성당을 구경하다 가방이 없어졌고 이렇게 역행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경찰에 알리려고 경찰서를 찾을 때 한 거지가 우리를 도와줬다.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거지를 처음에는 가방을 훔친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결국 관광 안내소에 내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현금은 거의 없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모두 줬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형들과 함께 이스탄불에 머물렀다. 이스탄불에 머물 지 5일이 되었을 때 각자 여행을 위해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날 밤 이스탄불에서 먹는 대중적인 맥주를 한 캔씩 가지고 마르마라 해를 보며 맥주를 마셨다. 솔직히 맥주는 맛이 없었지만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날 것에 몇 번이나 감사했다.

나는 브루사라는 도시로 가는 버스 티켓을 끊었다. 터키는 기차보다 리무진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다. 리무진 버스 안에는 승무원이 있어 우리에게 음료를 주거나 간식거리를 줬다. 또한 정류장에서 티켓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닌 여러 버스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 그 버스 회사의 티켓을 사고 가는 형태로 이뤄졌다. 버스 회사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터키 몇 군대를 여행하고 그리스, 이집트로 가는 코스인 지중해 중심 코스로 여행을 이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군데 여행을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한 나라를 제대로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이스탄불 서쪽 브루사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동쪽 반을 거쳐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기 까지 13개의 도시를 여행했다. 터키 서쪽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살기 좋은 휴양도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터키 동쪽은 쿠르트족이 독립을 외치고 밤에는 총소리가 들렸다. 반이라는 도시를 여행할 때는 터키 고위 경찰이 나를 차에 태워준 뒤 시내 한 카페에서 홍차를 대접하고 이곳은 위험하니 조심하라며 경고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서쪽임에도 사람 사는 냄새는 동쪽보다 서쪽 도시들이 더 풍겼다.

35일 동안 터키 여행을 했다. 그리고 8월 한국에 돌아왔다. 여행을 끝내고 한국에 왔을 때 한 도시를 칭공한 증만감으로 가득했다. 또한 내가 머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할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우선 돈을 너무 아끼 몸이 피곤했다. 또한 관광보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꼈는데 현지인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에어비엔비 활용을 적게 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일부러 관광 명소를 찾기도 하고 터키에 가면 이긴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예를 들어 밀문투어)을 했지만 만족감이 크지 않았다. 사람들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여행을 했다면 더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 ○ '열정대학'

배낭여행은 했지만 끝내 '하고 싶은 일'은 찾지 못하고 2014년 2학기 학교에 복학했다. 학교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친구들은 20살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수업들 듣고 자취방을 가는 내 생활패턴도 변함이 없었다. 동아리 안에서도 크게 할 일이 없었고 새로운 동아리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다. 내게는 다시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다.

10월 열정대학 지원서를 합격하고 11월 2박 3일 동안 '자기분석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시작으로 '열정대학' 활동을 시작했다. '열정대학'은 11월-1월까지 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했고 1기, 2기 기수를 이어갔다. 운영 방식은 본부라고 불리는 운영진에서 제공하는 전로 교육과 죽음, 행복 등을 배우는 인문 교육 그리고 단편 영화 제나 클레쉬를 같은 단체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열정대학의 가장 큰 매력은 이곳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쉽게 말해 학생들이 선생이 되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학생은 정말 선생이 되어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다(예를 들어 돈에 대해 배우는 돈학과나 섹스에 대해 배우는 섹스학과) 같이 활동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댄스를 주 목적으로 했던 댄스의리는 구성원들이 춤을 배우고 학생 앞에서 직접 공연을 했다.) 물론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합격하는 건 아니었다. 전공과목은 개설자를 포함해 최대 6명 이었고 선택과목은 인원수 제한이 없었지만 개설자 마음에 따라 사람을 뽑을 수 있었다. 또한 본부가 정해 놓은 미션(전공 및 선택과목 몇 개를 만들어 이수, 본부에서 정해놓은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 하기 등)을 완료하면 수료생 - 졸업생으로 물질적 보상은 없지만 명예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줬다.



그림 19 우천여행 단체사진

2017년 1월까지 나는 이곳에서 학생과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학생으로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활동했고 운영진으로는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 이후 3개월 정도 활동을 쉬고 다시 16년 2월부터 17년도 1월까지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처음 했던 활동은 위에도 언급했던 '자기분석여행'이었다. '자기분석여행'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횡성 수련원에 모여 자신의 연보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끼라 자기 이야기를 한 후 자신의 가치관을 찾고 몇 년 뒤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본부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건강학과, 무전여행, 플레쉬몹, 단편영화, 하프마라톤 등 참여하고 내가 만든 마음학과는 4기까지 만들어 활동을 이어갔다.

모든 활동을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눈을 확인되는 것만 100개 넘는다. 물론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대부분 학생들이 진로 고민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쩌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하지만 좋아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활동을 선호하는지 확인시켜 줬고 그 활동을 통해 나는 조금씩 성장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를 응원하는 문화는 '소외'의 사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로 역할을 수행했던 건 아닐까.

#### 그림 20 한국사회복지기업 진흥원에서 찍은 열정대학 직원들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위치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운영진 위치의 변화는 열정대학 '학생'으로만 만났을 때와 확실히 다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다. '열정대학'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여러 시도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상황이 생기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열정대학 직원이기도 했지만 학생이기도 했던 우리는 이 같은 갈등상황에 자주 직면했다. 불안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던 열정대학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고 그 변화를 몇몇 학생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불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 열정대학 활동을 위해 모였지만 직접 듣는 평가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일의 연장선으로 작용했다. 더군다나 열정대학 활동을 제외하면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나의 경우 열정대학 친구들을 만나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계속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었다.

작은 기업(5인 이하의 직원을 둔)에서 일하다보니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진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하기, 열정대학 내부 공간관리하기,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진행하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파티 준비하기, 기타 행정적인 일처리 등을 수행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맡아 제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다.

나는 열정대학에 일하면서 3명의 상사를 맞이했다. 그 중 2명과 일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그들은 일을 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감에도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소동에 대한 부채를 아쉬워했다. 아마 내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 시간이 촉박함을 느꼈고 여기서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 것 같다.

'열정대학'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운영진'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경험과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배움은 남들에 비해 일찍 해볼 수 있었다는 것에서 큰 행운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수확은 소동에 대한 내 문제점을 파악했던 일이 아닐까.

지금까지 소동에 대한 문제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상대방과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내게 있다. 베버가 말하는 권력은 '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다. 나는 베버가 말하는 이 권력의 힘이 부족하다. 내 것을 주장함으로써 오는 상대방과 나의 마찰을 사전에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형성은 유아적이다. 나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상처 받는 환경을 피해버린다. 그리고 이 같은 회피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상대방과 나 사이 관계악화로 다가온다.

## ○ 다시 대구대로

열정대학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곳을 운영하는 역할도 수행했지만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열정대학 안에서 과목을 개설한 게 상담 심리적 성향이 강했던 '마음학과'와 이곳 스터디를 할 때 '심리학'을 따로 공부했던 만큼 일을 하면서도 '심리학'에 계속 관심을 주고 있었다. 다만 내부적으로 사람들은 왜 상담을 받아도 순간만 나아질 뿐 다시 찾아올까? 그리고 상담 기관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왜 자살율도 높아질까? 심리학의 마음치료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같은 물음은 끊이지 않고 이어왔다.

2017년 2월 학교를 복학했다. 학교를 떠난 지 2년 만에 일이다. 학교에 복학하고 목표를 세운 게 있다면 성적장학금을 받아보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공인 사회학과와 복수 전공인 심리학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아직 남아있던 동기 및 후배들과 어떤 교류 없이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 들어가 그 날 녹음한 교수님의 말을 컴퓨터에 받아 적었다. 그 외에도 진로에 대한 북마름이 있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마침 생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그룹형 진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만히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진로 교육을 받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 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바쁜 학기 생활이 이어졌다.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을 만날 때 지금까지 했던 행동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나는 보수적인



선택과 사고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의 변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사회학'과 '미래 사회의 전망'을 들으며 내 편견은 도전을 받았다. '섹슈얼리티사회학'은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그것에 대한 역사, 법, 문화 순으로 근거를 찾아갔다. 보수적인 가부장에서 자란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알고 있었고 나를 평등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자만심이었음을 알았다. 수업이 끝나고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악어 프로젝트',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등 세미나준 도서를 찾아 읽고 정리했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지속적으로 '여성혐오'를 저지르고 있음을.

현재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행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학자들은 '초자본주의<sup>20)</sup>'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포스트 자본주의' 저작 히로이 요시노리는 과거 인류 역사의 변동 곡선을 근거로 초자본주의가 아닌 '탈자본주의<sup>21)</sup>'를 전망했다. '미래 사회의 전망'은 자본주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결국 이 고민은 얼마만큼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 수 있는가로 연결된다.)을 깨트려준 수업이었다.

심리상담사를 선택한 이유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과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고 작년 초까지 계속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옷을 입었다. 사실 이건 욕심이었다. 본인이 씩 내키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욕심 말이다. 결국 2018년 1학기를 끝으로 그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내게 좀 더 흥미를 일으키는 사회학과 그 밖에 다른 활동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을 실질적으로 해결, 제어하지 못하는 정치·경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21) 자본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

## 「92년생 김씨의 계보학」을 마무리하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적은 있으나 이렇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던 책은 「92년생 김씨의 계보학」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한 글쓰기는 다시 한 번 부족한 내 능력을 확인시켜 준 결과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나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나를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정리를 통해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진로에 대한 여러 고민이 스쳤다. 결국 안정적인 선택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도 든다. 그러나 내 성장의 발판이 '흥미'를 동기로 한 도전으로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구현화 시켜 봤으니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구현하는 작업을 논문이나 에세이, 소설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멋진 작업이 될 것 같다.